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96호

Wednesday, May 14, 2025 A

미·중 3주전부터 워싱턴 비밀회동

미·중이 전격 합의한 '관세 휴전'이 3주 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IMF)·세계은행 춘계회의 때 시작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IMF 회의에 참석했던 베센트 장관과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3주 전 IMF 본부 지하에서 비밀리에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세계 2대 경제대국 간 무역이 붕괴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FT는 해당 회동의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도 이 시기 미·중 간 회동을 목격해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7시 쯤 중국의 고위 인사가 10여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백악관 바로 옆에 위치한 미 재무부 본부로 입장하는 장면이었다. 당시 10여 명의 중국 측 인사를 이끌던 고위 인사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측 수행원들이 중앙일보 취재진의 사진촬영을 완강히 막아서면서 해당 인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7시 쯤 중국 재정부 고위 인사가 10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로 입장하는 모습이 중앙일보에 확인됐다. 중국 측 수행원이 패용한 신분증엔 '중국 (China)'이라는 국적이 표기돼 있었다.

당시 중국 인사들은 모두 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발급된 신분증을 패용했는데, '중국(China)'이라는 국적이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당시 미국과의 물밑 접촉 사실에 대해 "미국과 어떠한 협의나 협상을 한 적이 없고, (관련 언급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반면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그들(중국)과 회의를 했다"며 "회의 참석자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쩌면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는 중화권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강태화 기자

제2의 팬데믹 '칸디다아우리스' 워싱턴 출현

버지니아.페릴랜드서 확인
감염 환자3명중 1명 사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롭게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세균 '칸디다 아우리스(Candida auris)'가 워싱턴 지역에도 출현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일 "진균인 칸디다균 가운데 가장 악성에 속하는 칸디다 아우리스 감염 사례가 버지니아 주에서 올해들어 99건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CDC에 따르면 2025년들어 현재까지 전국에서 1052건의 감염이 보고됐으며 임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도 상당수에 달해 감염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균이 대량으로 발견된 주는 미시간(185건), 오하이오(125건), 애리조나(98건) 등이 있고 메릴랜드,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유타 등도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CDC는 "칸디다 아우리스는 임상검사를 거쳐도 일반적인 칸디다

균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단 감염되면 환자의 30~60% 정도가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균은 환자에게 감염되기 전까지 조리대, 문 손잡이, 심지어 사람의 피부와 같은 표면에서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2의 팬데믹으로 일컬어지는 칸디다 아우리스균은 지난 2009년 일본 70대 여성의 귀에서 처음 발견된 뒤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칸디다 아우리스는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감염을 몰리칠 수 있지만 아프고 노약한 층이나 어린이들에게 쉽게 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자

관세 휴전에도 희토류 통제 강화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중국은 합의 발표 직후 미국이 필요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양국이 상호관세를 115%포인트씩 크게 낮추기로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지 불과 20분 뒤에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12일 합의에는 희토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전략회의를

통해 희토류 채굴부터 가공과 판매, 수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완전 중단되면 미국은 그 격차를 메울 수 없으며 항공모함조차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세계 주요 희토류 공급량의 90%를 차지해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본격임 남았다...미중 관세협상 전망은? 양국이 90일간 관세 인하에 합의하고 협상 시간을 벌었으나 민감한

사안들이 얹여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과잉생산, 과도한 보조금, 우회 수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보통 1년 이상 협상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으로, 트럼프 1기 때처럼 두 정상이 직접 담판을 짓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 전쟁 원인으로 지목했던 무역적자와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등은 제외돼 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4월 관세수입 163억달러, 87% 급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지난 4월 관세 수입이 전달에 비해 90% 가까이 증가했다.

연방재무부는 4월 관세 수입이 16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4월 관세 수입은 3월(87억5000만 달러)보다 약 76억 달러, 87% 늘어난 규모다. 작년 10월 시작한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633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둬 직전회계연도 대비

154억 달러 늘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정부 회계에 수입으로 반영되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4월 증가분은 연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4월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를 포함한 관세 수입이 반영됐다. 중국에 145%를 적용했던 관세 등은 대부분 유예됐으나 기본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김욱제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공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메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히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추진

공화 “방만한 운영 개선해야”
10년간 예산 8800억불 삭감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다.

전국의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시니어 등이 주 수혜 대상이다. 전체 수혜자 숫자는 860만 명에 달하고, 한인 수혜자도 수만 명으로 추산돼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개편의 핵심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를 개편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화당 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수혜자들은 연 2회 자격 조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수혜자의 변화 상황을 당국이 자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다.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 방안도 담겨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를 초과하는 수혜자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거주 주택과 차량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축소도 포함됐다. 거주와 뉴욕 등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측은 이와 같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연방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보건 관련 민간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산 축소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할 태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대표적인 복지 혜택인 메디케이드 축소가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주 출신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의원(공화)은 “해당 안이 현실화되면 지역구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힘들어진다”며 “이토록 급한 변화는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메디케이드 개편안 초안은 13일(오늘) 하원 산하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전체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는 26일 이전 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인성·김은별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변호사협회장 선거가 트럼프 재신임투표?

워싱턴DC변호사협회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찬반 진영으로 나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팜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브래들이 본디 변호사와 에디 마틴 전 검사장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알리시아 롱 변호사가 맞붙었다. 협회는 민간 단체에 불과하고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흡집낼 수 있기 때문에, 양 진영에 대립하는 것이다. 워싱턴DC 변호사협회에 소속된 변호사는 모두 12만1천여명으로 뉴욕, 캘리포니아에 이어 세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다음 달 끝나는 온라인 투표 기간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2만50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예년 수준의 세배에 이른다.

공무원 난자 냉동 비용 커버 법안 통과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의회가 공무원의 난자 냉동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가 통상 난자 냉동 비용 1만~1만5천달러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공무원은 모두 1만1300

명이며, 법안 혜택이 가능한 49세 미만 여성은 2500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체외수정 접근성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최대 2만5천달러에 이르는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난자 냉동 등의 분야에 큰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나흘 동안 187개 업소 단속 189명 체포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DC의 187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민단속을 진행해 모두 18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MS-13과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등 중남미계 갱단원 위주로 체포작전이 벌어졌다. 체포된 이들은 각종 성범죄, 폭행, 불법무기 사용, 신체 노출, 특수 강절도 등의 전과가 있었다.

주지사 흑인사 졸업대체 과목 법안 거부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흑인역사 혹은 AP 흑인학을 고교 졸업 필수 이수과목인 세계사1 혹은 세계지리 과목 대신 수강해도 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영킨 주지사는 애초 법안 수정과 재의를 요구하고 내년 다시 심의·통

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안이 막상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지사 측은 모든 학생들이 흑인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수강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필수 대체과목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7년 주기 매미 올봄부터 극성기 맞아

워싱턴지역에 최근 17년산 매미(Brood XIV)가 출현해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17년산 매미는 17년을 주기로 워싱턴 지역에 나타나 상당한 소음을 일으켜왔다.

매미는 일생의 대부분을 땅속에서 지내며 나무 뿌리를 먹고 살며 성충기에 20일 정도 지표 바깥에서 활동하다 생을 마감한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날씨 (°F)

	5월 14일(수) 74-63
15일(목)	81-65
16일(금)	85-66
17일(토)	86-65
18일(일)	83-61
19일(월)	79-57
20일(화)	76-6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s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내년 실업률 4.7%까지 올라갈 수도

UVA 경기 예측 보고서

연방정부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워싱턴지역 경제가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버지니아대학(UVA) 웰던 쿠파 공공서비스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버지니아 실업률이 3.2%에서 올연말 3.9%로,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의하면 버지니아 일자리 7개 중 1개꼴로 연방정부와 관련돼 있

으나 최근의 감축 추세와 경기 하락 국면이 이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실업률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 침체가 연방정부 감축 뿐만 아니라 최근 7년 이상의 장기 호황 국면에 따른 연착륙 트렌드로 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에릭 스코르선 센터 상임이사는 “버지니아 주민 중 연방정부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이 수십만명을 헤아린다”면서 “연방정부에서 시작된 해고바람이 하청업체로 옮겨가고 있으며 연쇄

적으로 식당과 소매서비스업 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코르선 상임이사는 “현재 경기 침체와 겹쳐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버지니아를 떠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방분야 예산이 여전히 견제하고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각종 조치로 대서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손해가 기대된다는 점이, 다른 악재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지 관심”이라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우로부터 흥기도 사무총장, 이태미 이사장, 김현정 사업이사.

2025년 아태문화축제 두달간 개최

한미문화예술재단 출범 20주년 기념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태미)은 생활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한식 세계화에 중점을 둔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두달 간에 걸쳐 펼쳐질 축제는 3단계로 나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데, 우선은 메릴랜드 월도프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한국에서 특별 초청된 박야림 무용가의 한국무용 소구춤 워크샵 및 공연, 이주형 무형문화재의 한지 종이접기 시범과 교육, 그리고 21세기 자연한식의 박송희 원장의 된장 간장 담그기와 김치·김밥 만들기 시연과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다음은 제19회 아태문화축제 ‘아리랑 코리아’가 6월14일 오전11시 메릴랜드 인디안헤드에 위치한 ‘인디안헤드 빌

리지그린’에서 개최되는 데, 이 행사에서는 한국 무용, 사물놀이, 한식, 한지 꽃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찰스카운티 도서관 4곳에서도 찾아가는 한국 문화교실이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7월1일에는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노바대학 강당에서 ‘코리아 아트 앤드 소울(Korea Art & Soul)’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태미 이사장은 “이번에는 특별히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시켰지만, 그 중에서도 한식 홍보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문화행사에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태미 이사장을 비롯해 흥기도 사무총장, 김현정 사업이사 등 한미문화예술재단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정오 애난데일 소재 한식당 ‘예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축제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문의 703-200-9390 김성한 기자

중국발 소액소포 관세 120%→54%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냉각기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중국발 소액 수입품 관세도 크게 낮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14일)부터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현행 120%에서 54%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소포 1건당 100달러 고정 세액은 유지되지만 6월1일부터 200달러로 인상키로 한 계획은 취소됐다. 종합하자면 중국에서 발송된 800달러 미만 소포의 경우 물건 가격의 54%를 관세로 내거나 고정 세액 100달러를 내면 된다.



4월 트럼프 대통령은 800달러 미만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조치로 테무, 위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저가 이커머스업체들이 회생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판매해왔다. 최근 미국에 유입되는 소포 중 면세 해당 물품이 90% 이상이며, 이중 60%가 중국에서 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면세 소포를 통해 펜타닐 등 불법마약이 유입된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 바이든 유산 지우기

연방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기 폐지하기로 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배터리 소재 등 요

건을 갖춘 전기차 신차 구매시 최대 7500달러 공제 폐지 시한이 당초 2032년 12월31일에서 내년말에 종료하게 된다. 또한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 이상인 전기차를 2026년부터 세액공제에서 제외돼 테슬라와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이 피해를 입게 됐다.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는 올연말 종료된다. 이밖에도 전기 렌트카 등의 세액공제 포괄인정 조항도 올 연말까지



만 허용한다. 공화당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전기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메모리얼 연휴 여행 20년만에 최대

20년 만에 메모리얼 데이(26일) 연휴 여행객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올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은 전국에서 4500만 명 이상이다. 이는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2005년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교통데이터 분석업체 ‘INRIX’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여행의 경우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는 23일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또, 연휴가 끝나는 26일에는 귀가 시 교통주의가 요구된다. 김경준 기자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KOREA UNIVERSITY

1905

고려대학교 워싱턴 교우회

봄 야유회

개교 120주년

푸르른 5월에 고대 워싱턴 교우회가 정기 봄 야유회를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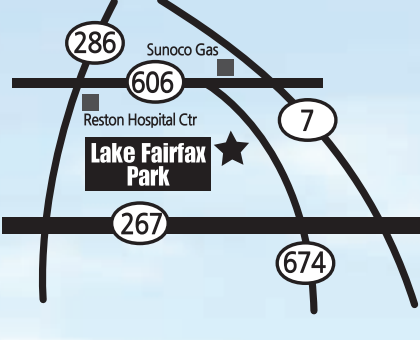
따스한 봄날 가족과 함께 야유회에 참석하시어
함께 웃고, 나누며,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모든 고대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일시** : 2025년 5월 18일 (일) 낮 12시

◆**장소** : **Lake Fairfax Park**
1400 Lake Fairfax Drive, Reston, VA 20190

◆**연락처** : 백승자: 410-900-5539
E-mail: kualumni.dc@gmail.com



Map showing the location of Lake Fairfax Park in Reston, VA, near Sunoco Gas and Reston Hospital Ctr.



고려대학교 워싱턴 교우회 회장 백승자

“불체자에 복지혜택 줬나” 연방 정부, LA카운티 조사

DHS, 거주 사회복지국에 소환장
수혜 이민자 개인정보 제출 요구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LA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카운티 정부가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까지 지원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예산 활용 투명성 등을 근거로 LA카운티 정부 조사에 나섰다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에 따르면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은 시민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이민자 중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CAPI 수혜자는 메디칼, 식료품지원(CalFresh), 간병인(IHSS)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HS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연방 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신청자격 미달인 불법체류자에게 현금 지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DHS 측은 LA카운티 정부에 보낸 소환장을 통해 ‘2021년 이후 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이민 신분, 사회보장 혜택 부적격 증명서, 신청서



증빙 진술서’ 등을 요구했다. LA카운티 정부가 소환장에 응할 경우 연방정부는 LA지역 이민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티 롱 DHS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연방의 복지혜

택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공공혜택 남용을 막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롱 장관은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사회보장 혜택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이민자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 가입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이민 신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거주 사회복지국은 가입자격 대상을 ‘비시민권자(non-citizens)’로 안내하고 있다. 거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 대상 메디칼 가입도 허용했다. **김형제 기자**

연방 시설 잘못 들어간 불체자
신분증 없어 체포돼 추방 위기

운전 중 길을 잘못 들어 연방 시설로 들어간 서류미비자가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 이 여성은 남가주에서 20년 넘게 살며 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증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불법 체류 신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LA타임스는 멕시코 출신인 아나 카메로(64)가 지난달 7일 라호야 지역 한 식당에서 일한 뒤 귀가하던 중 실수로 차량을 몰고 샌디에이고 해병대 신병훈련소(이하 MCRD)에 진입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카메로는 인근 주유소에 잠시 들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신병훈련소 초소에서 검문을 받았다. 당시 카메로는 경비대로부터 정부가 발행한 공식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신병훈련소 측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락을 했고, 카메로는 곧 체포돼 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MCRD 측은 성명을 통해 “연방 시설 진입 시 정부가 발행한 공식 신분증이 필요한데,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ICE에 통보했다”며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카메로의 딸 엘리사 에르난데스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고편드미’를 개설, “어머니가 당뇨와 혈관 질환을 앓고 있으나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카메로 씨는 샌디에이고 오타이 메사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ICE는 밝혔다. **강한길 기자**

경제 불안에 비행기 대신 자동차 여행

메모리얼 연휴 여행 전망
차량편 이용 20년래 최대
개스값 내리고 항공료는 ↑
정책 불만... 여행지출 감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전쟁이 소비자 신뢰를 흔들고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항공편 대신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전국자동차협회(AAA) 자료를 인용해 ‘메모리얼 데이(5월 26일)’ 연휴 주말에 여행객 3940만 명이 자동차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20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게 AAA의 설명이다.

항공편을 이용할 계획인 사람은 361만 명 정도로, 1.7% 증가에 그쳤다.

유가가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개스 가격이 내린 것도 자동차 여행을 선호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AAA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평균 개스 가격은 갤런당 약 3.14

달러로 1년 전보다 갤런당 50센트가량 저렴하다. 반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주말 국내선 항공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올랐으며 평균 왕복 항공권 가격은 850달러 정도다.

일부 저가 항공사들이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요금 인상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몇몇 사고로 인한 항공 안전 우려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휴가용 임대 수익 관리 업체인 ‘비욘드’의 줄리 브랑크먼 최고경영자(CEO)는 여행객들이 해외보다 남부 멕시코만 연안 지역과 스모키 마운틴



올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의 규모가 20년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차량들로 붐비는 LA 지역 프리웨이. **[로이테]**

스 등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 하락세로 재산이 줄어든 갑부들도 휴가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기아, 비영리 단체 지원 성금 460만불 모금

달러 매치 프로그램 통해
전국 단체들 총 7곳 수혜
4년 동안 3000만불 후원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 실적 호조를 보이는 한국차 브랜드가 사회 환원 릴레이를 이어간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해 ‘Accelerate the Good’ 달러 매치 프로그램을 통해 총 46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 병원과 아동 식사 지원 비영리단체인 ‘노 키드 헝그리’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전국

의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환원 캠페인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다.

기아 북미권역본부 및 미국판매법인의 윤승규 법인장은 “기아는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Accelerate the Good’을 통해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 병원, 노 키드 헝그리 등 전국 수십여 개 비영리 단체가 펼치는 뜻깊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적십자사, 커버넌트 하우스, 오퍼레이션 홈프론트, 펫 파인더 재단,



전국에서 아동 굶주림을 끝내기 위한 여름 캠페인을 시작한 ‘노 키드 헝그리’와 기아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축하하며 타종 행사에 참여했다. **[기아 제공]**

토이즈 포 토츠 등 다양한 사회복지 및 아동·가족 지원 단체에 전달됐다.

기아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Accelerate the Goo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푸드뱅크, 아동 병원, 소외 계층 보호소 등 전국 각지의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기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30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전달해 왔으며, 음식물 저장소 정리, 해변 정화, 의료 기부, 아동 병원 내 미술 활동 지원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 보존, 야생동물 보호 활동 등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로 기부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은식 기자

1석5조 통합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5 in 1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N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Financial Group

Aetna

NATIONAL WESTERN LIFE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생명보험 (Life Insurance)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주택/비즈니스 용자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메디케어(Medicare)

로리 문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빈 살만 만난 트럼프, 6천억 달러 투자유치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3일(현지 시간) 6000억달러 규모의 사우디 대미 투자 및 미국의 대사우디 수출, 안보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첫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한 뒤 에너지·국방·자원 분야 협력안을 포함한 이 협정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12개 방산업체가 사우디와 총 1420억달러 규모의 방위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는 공군 및 우주 능력, 대공·미사일 방어, 해상 및 국경 안보, 지상군 현대화, 정보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됐다.

또 미국은 사우디군 역량 강화를 위한 군사 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사우디 기업 데이 터볼트가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3일 협정서를 주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200억달러를 투자하고, 구글·오라클·우버 등과 함께 첨단 기술 분야에 800억달러를 공동 투자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힐인타내셔널, 제이콥스, 파슨스, AECOM 등 미국 기업은 사우디 건설만 국제공항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미국 서비스 산업 수출이 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밖에 GE버노바의 가스 터빈 및 에너지 솔루션(142억달러), 보잉 737-8 여객기(48억달러) 수출이 진행되며, 사메트 IV 솔루션즈는 미시간주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총 58억달러 규모의 보건 분야 투자도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5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투자펀드, 50억달러의 항공우주 및 방

위기술 펀드, 40억달러의 글로벌스포츠 펀드 등 다양한 대미 투자 패키지도 함께 발표했다.

양국은 협정 체결과 함께 에너지, 미래 방위 능력, 광물 자원, 법무, 우주·감염병 등 분야의 양해각서(MOU) 및 협력 문서도 다수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군 현대화를 위한 별도의 합의에도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의 대사우디 수출 확대와 사우디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맞물린 이른바 ‘빅딜’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무역과 무기 거래뿐 아니라, 가자지구 휴전, 시리아 정세 안정, 이란 핵프로그램 해체, 유가 안정 등 중동 안보 이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양자 회담에 앞서 빈 살만 왕세자에게 “먼저 당신을 만나 기쁘다”고 인사했다. 이어 “우리는 서로 매우 잘 알고 있고 정말 서로를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며 친밀함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사우디와의 협력으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강조하며 사우디를 향해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조국에 계속해서 매우 잘 봉사(service)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우디가 미국에 6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조달러면 더 좋겠다”고 농담처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1월 취임 이후 첫 해외 공식 일정이다. 16일까지 사우디를 시작으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첫 임기 당시에도 사우디를 첫 방문국으로 선택한 바 있다.

한편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이스탄불 평화협상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 전격적으로 협상장에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해준 기자

“미국 특사들, 종전 회담 열리는 이스탄불행”…푸틴 참석 압박?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들이 오는 1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열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조만간 갈 것이라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참석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



로그 우크라이나 담당 특사가 라·우크라 회담에 대비해 이스탄불로 갈 예정

이나온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담당 특사와 키스 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참석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12일 “(이스탄불로)

가는 걸 실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두 특사가 이스탄불로 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계속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라며 “아직은 그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협상에서 누가 러시아를 대표하느냐”는 질문에는 “(푸틴) 대통령이 (대표를 발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때 즉시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스탄불 협상에 유럽 국가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유럽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이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여줄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상진 기자

트럼프 전투기 호위한 빈 살만…붉은색 대신 보라카펫 깔까닭

13일(현지시간) 중동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빈 살만 왕세자의 영접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 착륙 30분 전부터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 3대씩이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좌우 양옆을

밀착 호위했다.

덴 스캐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엑스(X)에 에어포스원에서 촬영한 F-15 호위 장면 영상을 게시하며 “에스코트해 주고, 트럼프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켜줘서 우리 모두 감사하다”고 적

었다.

공항에 착륙한 에어포스원 계단 아래에는 보라색 카펫이 깔렸다. 사우디 왕실은 2021년부터 고위 인사를 맞이할 때 기존의 붉은색 대신 보라색 카펫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 살만 왕세자는 밝은 얼굴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그는 두 손을 내

밀어 악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왼손을 왕세자의 어깨에 올리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를 마친 뒤 공항 청사로 이동해 사우디 전통 아랍 커피를 대접받았다. 이후 왕궁에서는 다시 ‘커피 의식’이 이어졌다.

이해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맞춤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60년 전 반미데모’ 꺼낸 시진핑, 관세협상 뒤 수상한 움직임

미·중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중국의 수상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브라질 대통령 등 중남미의 요인들을 불러 '미국의 뒷마당'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열린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 포럼' 제4회 장관급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중남미와 중국의 유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전쟁과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괴롭힘은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킬 뿐"이라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시 주석은 또 향후 3년간 매년 포럼 회원국 정당의 간부 300명을 초청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시 주석 연설에서 눈길을 끈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집권 이후 꾸준히 환수를 공언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와 관련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1964년 중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파나마 지지 군중 시위를 거론하며 반미 여론에 불을 지폈다. 시 주석은 "(당시) 중국 각지에서 대규모 군중시위가 펼쳐져 (미국으로부터) 파나마 인민의 운하 주권 회수를 성원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시위는 지

난 1964년 1월 중국 전역에서 펼쳐진 반미 데모를 말한다. 당시 파나마 학생들이 자국기 게양 운동을 펼치자, 마오쩌둥 주석은 이들을 지지하는 글을 인민일보에 게재했다. 마오는 "중국 인민은 파나마 인민의 편에 서서 미국의 침략을 반대한다"며 "미 제국주의는 세계 인민의 사악한 적"이라며 군중 시위를 부채질했다. 이후 천안문 광장과 톈진 등 전국 각지에서 100만명 규모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018년 12월 파나마 국민 방문에 앞서 보낸 기고문에서도 "1600만명이 중국 전역에서 행진과 집회를 열었고, 그 세대 중국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고 했었다. 파나마 운하가 미·중이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파나마 측이 홍콩계 기업인 허치슨이 파나마 운하의 2개 항구 운영권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이후 허치슨 측은 파나마를 포함한 해외 항만 43곳을 미국 투자회사 블랙록에 매각을 시도했는데, 중국 당국이 개입하면서 본계약이 마뒀히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등 3국 정



1964년 1월 16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파나마의 반미 투쟁을 지지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펼쳐졌다. 당시 마오쩌둥의 파나마 지지 기고문이 인민일보에 실리자 전국적으로 1600만명이 동원돼 파나마 지지 시위가 펼쳐졌다. [웨이신 캡처]

상도 참석했다.

앞서 마오더위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남미와 카리브해 인민은 자신의 정원을 건설해야지, 어떤 나라의 뒷마당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국을 견제했다. 관영 신화사는 13일 시평을 신고 "칠레산 채리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에콰도르에서 팔리는 자동차 100대 중 37대가 중국산"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중국은 이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면서도 평등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이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만일 중국과 협력을 원한다면 중국을 먹칠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평등하고 존중하며 호혜의 방식으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은 12일 홈페이지에 "미국 내 펜타닐 위기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 참여에 놀랐다"라며 "그들은 공안부 차관이 참석해 매우 활발하고 상세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을 게재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제네바 합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전날 무역기업 원탁회의에 참석해 "최근 중·미 경제무역 고위층 회의에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고 실질적 진전을 이뤄 의견 차이를 더 좁히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기초와 조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고 상무부가 발표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90일 휴전에 미국 수출을 재개하면서도 미국 대체 시장 개척에 나섰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은 13일 "이번 관세 인하가 14일 항구에 도착한 상품인지, 중국에서 선적한 상품에 대한 것인지 미국 세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선저우 의류 수출업자를 인용하며 대미 수출 재개 움직임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정한 무역 정책과 급변하는 관세에 맞서 중국 수출 기업들은 자국 내 판매 채널을 확충하는 한편 미국 외의 대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신경진 기자

값싼 중국전투기? 파키스탄서 위력 과시...“경종 울렸다” 대만 공포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파키스탄이 동원한 중국산 무기가 강한 성능을 보여 중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에서 "이번 파키스탄·인도와의 충돌에서 파키스탄의 중국 무기가 보여준 성능은 대만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CMP가 인용한 국방 전문가들은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에 대해 "대만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냉정한 미리보기였다"고 했다. 또 중국의 무기가 인도와 같은 서방의 혼합 무기를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민진당 천관팅 의원은 지난 10일 "인도와 파키스탄 간 공중전은 중국의 PL-15 공대공 미사일과 프랑스의 미티어 미사일이 처음 맞붙은 사례일 것"이라며 "이 무기 체계들이 어떻게 성능



을 발휘했는지가 앞으로 전 세계의 방위 조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만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의 역량을 어디에 신속히 투입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켰다"면서 "대만 안보에 중요한 시사점이 된 이번 교전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 앞으로의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카슈미르 파할갑에서 이슬람 과격집단의 테러로 관광객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배후라며 7일 보복공격을 했다.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중

국에서 들여온 J-10C(사진) 전투기가 쏜 PL-15 미사일로 인도의 프랑스체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사이인도군 전투기 72대에 맞서 파키스탄군 전투기 42대가 발진했다. 파키스탄은 JF-17, J-10, F-16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의 합작 전투기지만 사실상 중국의 기술로 만들어졌다. 파키스탄은 인도군의 라팔 3대, Su-30MKI 1대, MiG-29 1대, 무인기 1대를 격추했다며 지도까지 공개했다. CNN과 BBC, 로이터 등도 인도 전투기의 피격을 일부 확인했다.

J-10은 값싸게 만들어 대량으로 배치하기 위해 개발된 중국 전투기다. 라

팔은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다. 라팔은 J-10C보다 고성능에 가격도 더 비싸다. 중국이 2016년 개발한 PL-15는 전투기의 레이더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는 능동 레이더 유도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5 이상, 최대 사거리의 최소 200km를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시커(탐색기)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쓴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PL-15의 수출형 PL-15E를 수출했다. PL-15E의 최대 사거리는 150km 안팎이다.

SCMP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군사 운용 능력에도 주목했다. 무기 도입을 늘리는 것만이 아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 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의 쉬샤오환 수석 연구원은 "이번 전투는 중국이 통합 전술을 선보인 일종의 대리전이었다"라며 "중국의 지원 아래 파키스탄은 공중 조기경보기와 디지털 지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전

방위 전투 작전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파키스탄은 J-10C의 자체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PL-15를 발사할 수 있었다"며 "이는 전투기의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제 타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미사일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 뒤에 있는 네트워크가 작전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안전연구원 수석원 연구원도 "시스템 통합 없이는 대만의 장거리 공격 대응력은 극히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군사 분석가인 에리히 시는 "대만 군의 통합 수준은 몇십년 뒤쳐져 있다"면서 "대만이 보유한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F-2K 조기경보기조차 현대 공중전에 필수인 최신 협동 교전 인터페이스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해군 중장 출신의 군사전문가인 란닝리도 "이번 교전은 대만 군사 계획에 경고음을 울렸다"면서 "대만은 무기를 사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규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은 하이, 프로스트비들 2025 새집용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6. Clifton 싱글 \$950,000 방 4, 화 3.5, 차고 2, 3,300sqft, 센터빌 하이 세입처럼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지붕, 새 HVAC	11. 맥클린 콘도 \$485,000 방고 환풍 8층, elevator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차고 2, 테라스 방 2, 화 2, 1335sqft
2. 찬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7. 맥클린 하이, 럭셔리 싱글 \$2,799,000 방 6, 화 6.5, 6,0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디자인, 맥클린하이, 롱블루밍, 495/66/267/123/Old Dominion Dr	12.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 3, 화 2.5, 차고 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3. 찬들리 하이 싱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성당 근처, 66/28/50/29	8. 맥클린 하이 싱글 \$2,599,000 방 7, 화 7.5, 6,1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 고급적 디자인, 맥클린하이, 롱블루밍, 495/66/267/123/Old Dominion Dr	13. 찬들리 새타운 콘트 \$3,600 방 3, 화 3.5, 차고 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4. 센터빌 싱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하우스,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슬러 팩넬, 6,228sqft	9. 매쉬빈 타운 \$670,000 Coming Soon 2012년, 방, 화 3.5, 최고 학교, RT267/50/28/607, 필라즈 공항	14.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워,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중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면
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 4, (메인/ 풀베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10.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니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8277 ROXBOROUGH LOOP, GAINESVILLE, VA 20155 방 4, 화 4.5, 차고 2, 4,433 sqft, 2004, 0.3acre, 맥러오, 스크린맥, 계단 없는 메인매클 1층, 방 2, 풀베스 2.5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김문수 빅텐트나, 이준석 동탄모델이나… 지지율에 달렸다

〈3자대결 승리〉

6·3

대선 맥 짚기

주목받는 ‘범보수 단일화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강 구도’를 깨기 위한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물밑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 중이다.

단일화에 목이 마른 쪽은 국민의힘이다. 당초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교체하려던 시도는 자중지란 끝에 실패로 돌아갔고, 이 과정에서 친윤계의 분화와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붕괴라는 후폭풍이 이어졌다. 결국 김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등록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등 김 후보의 강성 우파 이미지가 확장성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의 이 같은 한계를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필수 요소로 본다. 윤 전 대통령 및 친윤계에 의해 당에서 축출돼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민주당의 ‘내란 공세’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이 후보의 자산이다. 1951년생인 김 후보보다 서른네 살 어린 1985년생이라는 점도 보수의 세대교체 및 이미지 쇄신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쳐 온 한동훈 전 대표의 등장으로 강성 보수

김문수, 단일화로 지지층 확장 노력
빅텐트 추진단 구성, 단장엔 신성범

이준석 ‘4대4대2’ 구도로 승리 노력
“언더독 기대하는 국민들 늘어날 것”

이재명 지지율 과반 뚫은 단일화 동력
40% 초반 뚫은 단일화 여론 거세질 듯

지지층 사이에서 이 후보에 대한 반감이 비교적 열어진 점도 국민의힘 단일화 시도에 긍정적 요인이라는 관측이다. ‘김문수·한덕수’ 자중지란이 심화하던 이달 초엔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에 반대하는 일부 친윤 의원들이 이 후보 지지를 염두에 두고 개혁신당 입당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 성향의 중진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경선 패배 후 당 중앙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선 당원 모집을 통한 차기 당권 레이스에 집중하며 당내 실망감이 더 커졌다”며 “대선 승패를 떠나 보수를 쇄신할 차기 주자로 이준석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당에서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한결 여유 있는 입장이다. 전략은 명확하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해 승리한 ‘동탄 모델’의 전국화다. 이 후보는 당시 경기 화성읍에서 민주당 공영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부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현동 기자

초반 열세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뒀다.

이준석 지지율 10% 넘으면 주도권 쥔 수도

이 후보 측은 이번 대선에서도 김 후보의 지지율을 20% 이하로 묶어 ‘4대4대2’ 구도를 만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고 많은 분이 판단할 것”이라며 ““언더독(약자)’에 대한 기대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바라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변수는 두 가지다. 우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되는 기준선인 15%를 넘길 경우 이 후보는 완주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해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보수 재편 과정의 주도권을 쥔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보전 기준인 10% 이상만 안정적으로 나와도 협상의 주도권을 이 후보가 쥔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반면에 이 후보 지지율이 5% 이하로 지지부진할 경우 되레 단일화 시너지 반감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협상을 주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부 변수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꼽힌다. 최근 복수의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0% 중·후반, 김문수 후보는 30% 전후,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 초반대 박스권에 갇힐 경우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력이 거세지겠지만, 반대로 50%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면 보수 진영이 대선 패배를 전제로 한 재편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단일화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23일 TV토론, 대선 분수령 될 가능성

이미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수싸움은 시작됐다. “단일화는 쇼”라고 공개 언급한 이 후보는 김 후보의 확장성 한계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13일 경북대 방문 뒤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는 저와의 단일화를 언급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결이 맞는 전광훈 목사나 자유통일당과의 빅텐트를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텐트가 얼마나 큰지, 찢어진 텐트인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투표용지 인쇄 전에 진행되는 오는 18일과 23일 대선후보 TV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김 후보 측은 13일 빅텐트 추진단을 꾸리며 적극적인 단일화 의지를 드러냈다. 단장엔 비윤계 3선 신성범 의원을 낙점했다. 신 의원은 이준석 후보와 같은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날 김 후보의 계엄 사과, 이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윤 전 대통령 탈당 발언 등도 단일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 선대위 출정식에서 ‘반명 빅텐트’ 관련 질문에 “자유통일당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준석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정 기자

‘빅3’ 영남대전

후보들 영남 집결해 공성·수성전

이재명 “재깍이가 남이가” 호소

김문수 “젊을때 박정희 반대, 잘못”

이준석 “미래 위해 내게 투표”

6·3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대선주자들은 영남을 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동진(東進) 전략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수성(守城)전이 충돌한 것이다. ‘세대교체’를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종일 대구를 누볐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각각 경북 안동과 영천에서 태어났고, 이준석 후보의 본적지는 대구시 중구다.

선거 초반 영남에 화력이 집중된 것은 의외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2022년 대선에서 대구(21.6%)·경북(23.8%) 득표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최근 3자 가상대결 조사(KBS·한국리서치, 6~8일 휴대전화 면접조사)에서 전국은 ‘이재명 49%, 김문수 29%, 이준석 7%’ 순이었는데, 대구·경북에서만 ‘김문수 46%, 이재명 32%, 이준석 8%’로 순위가 바뀌었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선 영남 유권자와 심리적 일체감을 높이는 게 지지층 결집의 첫 단추다. 경기도에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도지사를 지낸 그는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첫 지역구 낙

선의 아픔을 맛봤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그는 이날 “박 대통령은 서울 집을 빼앗기고 대구시 달성군에 와 계시는데 저와 같은 학번”이라며 동질감을 강조했다.

2012년 ‘박근혜 키즈’로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 후보에게도 대구의 민심은 중원 확장을 위해 넘어서야 하는 고지다. 이날 이 후보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될 당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언급하며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넘자고 했고, 정치 변화의 시작을 바로 이 대구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전 11시쯤 경북 구미역 광장 집중유세로 일정을 시작하면서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를 안 해주나”라며 “재깍이가 남이가!” 이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했다. 전날과 같은 파란 점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한 이 후보는 “쫄 다른 것도 써보세요! 이재명도 한번 일 시켜보세요. 어떻게 되나!”라고 외쳤다.

구미가 고향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젊은 시절에는 독재하고 군인을 동원하고, 사법기관을 동원해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 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런 사실이 라면서도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다”고 했다.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쨌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쨌까”라고도 말했다.

‘뺨뎀 당만 뺨지 말라’는 게 이날 이 후보의 메시지였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세세’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제가 중국에도 ‘세세’ 하고, 대만에도 ‘세세’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나 이렇게 말했다”면서 “제가 일본 대사에게도 ‘세세’라고 말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십니까’라고 했다. 제가 잘못됐나”라고 반박했다.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이날 울산과 부산을 찾아 이재명 후보를 맹공했다.

김 후보는 “어떤 후보는 총각, 검사를 사정한다”며 “저 김문수는 굶어 죽어도 거짓말은 안 한다”고 했다.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대위 출정식에선 “자기 형님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섰다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한테 욕설을 하는 사람 중에 누굴 뽑아야 하나”라며 “이런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은 확 찢어버려야겠죠”라고 말했다.

부산·대구·울산=김규태·성지원·조수빈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습니다.”

Cheltenham Homecare

첼튼햄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800-764-1005**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 관광에
필요할때?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5/28(수)-6/9(월)	알프스 파노라믹	마감
6/3(화)-6/15(일)	코카서스3국 12박13일	마감
6/10(화)-6/19(목)	알프스 하이лай트 9박10일	마감
7/1(화)-7/14(월)	북유럽+발틱 13박14일	마감
7/17(목)-7/22(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마감
8/1(금)-8/15(금)		마감입박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14박15일 \$16,400조앤 한		
8/1(금)-8/13(수)	(케냐,빅토리아폭포,남아공)	마감입박
아프리카 여성 싱글 룸메이트 가능 12박13일 \$12,900		
8/4(월)-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12,900		
8/4(월)-8/11(월)		재키 조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8/10(일)-8/16(토)		
그린랜드 6박7일 \$5,950		
8/13(수)-8/19(화)	알래스카 6박7일	마감
9/8(월)-9/21(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스탄	
중양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9/8(월)-9/17(수)		조앤 한
우즈베키스탄 9박10일 \$3,990		
9/14(일)-9/24(수)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애나 김		
9/30(화)-10/13(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슬로베니아	
동유럽 & 크로아티아,돌로미티 13박14일 \$4,890		
9/30(화)-10/7(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애나 김
동유럽 7박8일 \$2,890		
10/6(월)-10/13(월)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돌로미티 7박8일 \$2,990		
10/9(목)-10/18(토)	볼티모어 출발	마감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9박10일		
10/9(목)-10/19(일)		인솔자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조앤 한		
10/15(수)-10/25(토)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박11일 \$2,990 인솔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세라 정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2,890		
11/6(목)-11/18(화)		
네팔과 부탄 여행 12박13일 \$5,490 조앤 한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11/11(화)-11/20(목)	카이로,멕시코,아스완-아부심벨-아스완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090 데이빗 한		
11/26(수)-11/30(일)		
멕시코 코스타리카 4박5일 항공포함 \$2,090 세라정		
11/29(토)-12/12(금)		마감입박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3박14일 \$6,590 재키 조		
12/1(월)-12/12(금)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4,950		
12/1(월)-12/7(일)		
쿠바 6박7일 \$2,987 조앤 한		

2026년도 미리 준비하세요!		
1/10(토)-1/19(월)	SMALL GROUP TOUR NEW	
오만,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 9박10일 \$5,090 조앤 한		
1/16(목)-1/24(토)	바하마 크루즈(볼티모어 출발)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인솔자		
1/29(목)-2/8(일)		
신비의 북인도 10박11일 여행 \$3,490 재키 조		
1/29(목)-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2/3(화)-2/8(일)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항공포함 \$2,190 세라 정		
2/10(화)-2/23(월)		
남인도+스리랑카 13박14일 조앤 한		
2/14(토)-2/23(월)		
스리랑카 문화탐방 8박9일		
2/17(화)-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2/25(수)-3/5(목)		
페루 일주 8박9일 \$3,595 재키 조		
3/5(목)-3/15(일)		
파타고니아 10박11일 재키 조		
3/5(목)-3/19(목)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3/23(월)-4/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3,690 조앤 한		
3/30(월)-4/11(토)		
일본 맛여행 + 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재키 조		
4/12(일)-4/18(토)		
고국의 봄, 남해 맛 기행 6박7일 재키 조		
4/12(일)-4/21(화)		
고국의 봄, 남해 맛 기행 +제주도 9박10일		
4/20(월)-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조앤 한		
4/26(일)- 5/6(수)		
시칠리 섬 + 몰타 10박11일 재키 조		
5/24(일)-6/4(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11박12일 재키조		
6/14(일)-6/25(목)		
아일랜드 & 스코틀랜드 11박12일 재키조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캐나다 퀘벡, 몽트랑블랑,천섬

천섬 크루즈/오저블케이즘/몽트랑블랑 곤돌라
5/23(금)-5/26(월)
3박4일 \$899

대형버스

메모리얼 데이 스페셜

VIP 리무진 버스 뉴욕 1박2일 마감

뉴욕+엠티전망대/케이프 메이 페리/특식
5/25(일)-5/26(월)
1박2일 \$425

메모리얼 데이 스페셜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8/4(월)-8/16(토)
\$12,90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아이슬란드

8박9일 8/4(월)-8/11(월) \$6,900 항공불포함

그린랜드

5박6일 8/10(일)-8/16(토) \$5,950 항공불포함

중양 아시아 3국 실크로드 여행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스탄
13박14일 9/8(월)-9/21(일)
\$5,2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서유럽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박11일 9/14(일)-9/24(수)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동유럽 & 크로아티아,돌로미티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13박14일 9/30(화)-10/13(월)
\$4,8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남만의 동유럽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7박8일 9/30(화)-10/7(화) \$2,890 항공불포함

크로아티아& 이태리 돌로미티 이지 트레킹

7박8일 10/6(월)-10/13(월) \$2,990 항공불포함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10/15(수)-10/26(일)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10/19(일)-10/31(금)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10/22(수)-10/31(금)
\$2,8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고국의맛!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15(수)-10/25(토) 모든 옵션 포함!!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11일 \$2,990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항공 불포함

내륙일주 7박8일 \$2,390

항공 불포함

볼티모어 출발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찰스톤/올랜도/마이애미/낫소 바하마 크루즈

2026년 1/16(목)-1/24(토) 8박9일
인솔자 동행

8명이상 출발가능

뉴욕 1박2일 \$399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목 출발가능 추석맞이 10/6 모집중!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수 출발가능 6/18,8/6 출발확정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 출발가능 6/23 출발가능 \$1,350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서부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항공 불포함

엘로스톤 3박4일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50항공 불포함

캐나다 록키 5박6일 \$1,190항공 불포함

알래스카 6박7일 일요일 출발 \$1,650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2명이상 출발가능 5박6일 \$1,300항공 불포함 일요일 출발

김문수 “윤 출당, 생각해본 적 없어”…당 내부선 탈당요구 커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가 13일 오후 울산 중구 성남동 뉴코아 팩토리아울렛 울산성남점 인근에서 열린 거리 유세를 마친 뒤 한 시민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 “탈당 여부는 본인 뜻” 거리두기
김용태 “국민 상식 맞게 판단할 것”
자진탈당 유도 투트랙 전략 해석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의 거취 압박에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을 경우 출당(제적)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내 컨센서스를 도출해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나 선거대책위원장들과 조율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보느냐’라는 물음엔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건 저도 여러 차례 말한 적 있다. 그것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이날 “현재로서

그런 조치(출당)를 생각해본 적 없다”고 거리를 뒀다. 김 후보는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윤 전 대통령 본인 뜻”이라며 “당이 탈당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판단해 탈당하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일종의 역할 분담”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선후보가 된 김 후보가 직접 나설 수 없으니 투트랙 전략을 쓴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두 사람의 결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 이슈로 띄워 자진 탈당을 유도하는 포석 아니겠냐”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거취 문제를 비롯해 김 후보와 김 의원 사이에 소통과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걸로 안다”고 했다.

국회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과

갈라셔야 한다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결집 호소문을 내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자 당내 위기감은 더 커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13일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당과 선거보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고 김 후보를 압박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탄핵에 반대했던 ‘집토끼’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이 때문에 제명 조치나 탈당 권유(10일 내 불응 시 자동 제명) 등 선제적 징계를 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봉건시대 군신유의(君臣有義)도 아니고, 국민이 왜 윤석열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냐”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적었다.

손국희 기자

택시 몰다가 농사짓다가 사업하다 달려온 ‘김문수 사단’

6·3 대선 인사이드

민중당 함께 창당한 박종운
김문수 1호 보좌관 차명진 등
선대위 내 직함 없이 ‘백의종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캠프는 ‘공포의 외인 구단’으로 불린다. 3선 국회의원과의 재선 경기지사 등 김 후보의 ‘화양연화’(꽃처럼 아름다운 시절)를 함께 보낸 뒤 이리저리 흩어졌던 이들

이 다시 ‘김문수 깃발’ 아래 뭉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가 차명진 전 의원이다. 15대 총선 때 처음 국회에 입성한 김 후보의 ‘1호’ 보좌관이다. 2006년 김 후보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부천 소사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재선 의원까지 지냈다. 하지만 19~21대 총선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고, 특히 2019년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으로 귀농해 두릅·들깨·고구마 등 밭농사를 지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과 관련한 목소리도 내왔다.

현재 김 후보를 밀착 수행 중인 박종운 전 경경연(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도 오래된 인연이다. 김 후보가 1980년대 초 연서집에 박 전 총장이 자주 들러 교류가 시작됐다. 이후 민중당 창당 작업도 함께 했다. 경기도를 나온 뒤엔 온라인 매체 논설위원 활동과 택시운전 등을 하다 지난해 김 후보가 고용부 장관에 임명되자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합류했다.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

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연관이 깊다. 박 열사가 고문을 견디면서까지 지킨 선배가 바로 그다. 박 열사 부모는 아들을 대신해 박 전 사무총장을 양자로 맞이했다.

경선 캠프였던 ‘승리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노용수 전 경기도 비서실장도 있다. 그는 ‘김문수 의원’ 시절 지역 사무실 사무장 겸 비서관이었다. 경기도의원을 지낸 그는 내년 시흥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다 김 후보 옆으로 다시 왔다. 경선 캠프에서 각각 총무팀장과 일정팀장을 맡았던 전문순 전 경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손원희 전 경경연 사무총장도 김 후보의 의원 시절 보좌관과 비서관이었다. 전 전 이사장은 경선 캠프 합류 전에 개인사업을 했다.

정책 분야 담당인 최우영 전 경기도 대변인은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 대변인과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김 후보가 창당한 민중당 정책실에서 일하기도 한 그는 김 후보가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반(反)이재명’ 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대부분 김 후보와 노동·학생 운동으로 깊이 연결된 동지적 관계다. 하지만 이번 선대위에선 “백의종군하라”는 김 후보의 의견에 따라 직함 없이 활동하고 있다.

김민욱·이창훈 기자

홍준표 지지자 일부, 이재명 지지 선언…이병태 선대위 합류는 불발

(홍준표 캠프 본부장)

홍사모 등 “국민의힘, 보수 아니다”
민주당, 이병태 과거 발언에 반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일부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그간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 정부 출신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을 당 선대위에 영입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밀바닥 보수층까지 흡수에 나섰다라는 분석

이 나온다.

‘홍준표와 함께했던 사람들’(국민통합전홍·홍사모 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지지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영길 홍사모 회장은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의 파행은 많은 상처를 남겼다”며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국민통합전홍 회장도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당이 정상적인 당이냐”고 했다.

회견은 국민의힘 출신의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주선했다. 이 의원은 회견 종료 후 “앞으로도 홍 전 시장 지지자를 단계적으로 영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도 전날 “막걸리 한잔 나누자”며 홍 전 시장에게 ‘리브콜’을 보냈다.

다만 홍사모 등의 회견에 대해 홍 전

시장의 최측근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페이스북에 “회견은 홍 전 시장과 관련이 없다. 그들의 개인적 선택일 뿐”이라며 “홍준표라는 이름을 이용해 자신들의 선택을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홍 전 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병태 전 KAIST 명예교수의 민주당 선대위 합류는 불발됐다. 이 전 교수는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과 점심을 한 뒤 페

이스북에 “이재명 캠프에 조인(합류)한다”는 글을 올렸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과거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성정을 보도라면 섬찔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다. 권력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괴물”이라는 글을 올린 사실 등이 재조명되면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쏟아졌다. 이 전 교수는 이날 “선대위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정치가 성공토록 언제나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참에 “국민의힘을 ‘극우’ 프레임에 가두겠다”는 전략이다.

김정재 기자

It's Okay,
with
Jesus!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노무현에 장학증서 받았던 ‘운명’의 학생…“그의 꿈 이을 것”

(대통령과학장학금)

대선주자 탐구 **이준석**

‘과학장학금 1호’로 하버드서 공부
무료공부방 봉사하다 박근혜 만나
총선 4차례 도전끝 국회 입성 성공
“노무현 동서화합 꿈, 세대화합으로”

2011년 11월의 어느 날, 무료 공부방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배나사)의 교실 뒷문이 드르륵 열렸다. 그리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는 맨 뒤 빈자리에 앉더니 노트를 꺼낸 뒤 두 시간의 수학 수업을 꼬박 다 듣고는 들어온 모양 그대로 조용히 나갔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 수업을 진행했던 26세의 이준석 교사는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영 라이트(Young Right)’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최연소 주요 정당 대표, ‘선거의 왕’, ‘동탄 모텔’로 명명된 2024년 총선 역전극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아왔다. 그리고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인 만 40세에 도달한 직후 운명처럼 열린 대선판에 합류했다.

과학고 재학시절 삼성에 “컴퓨터 보내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985년 3월 31일 이수월씨와 김향자씨의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수재였고, 모친도 고교 교사였다. 그는 서울지하철 4호선 상계역이 개통된 직후 부모와 함께 상계동에 터전을 잡았다. 4호선 기관사가 어린 시절 꿈이었던 이었다.

학구열이 높았던 상계동 부모들은 아이들을 모아 ‘뽕앗이 과외’로 가르쳤다. 이 후보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1 무료 공부방 ‘배나사’ 운영 시절의 이준석 후보. 2 어린 시절 상계동상당에서, 고개 숙인 어린이가 이 후보다. 3 26세 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계 입문한 직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함께. 4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던 국민의힘 대표 시절. [사진 이준석 페이스북, 중앙포토]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교육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

그는 ‘상사맨’이던 부친을 따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1년씩 해외 경험을 한 뒤 귀국해 대표적 학군지인 서울 목동의 월촌중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오직 공부로 서열이 매겨지는 곳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때 치열하게 공부했던 경험은 훗날 이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한 경쟁’ 개념의 밑바탕이 됐다.

삼선전자 홍보팀에 “홍보 부스 전시용 컴퓨터를 학교에 기증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해 25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받은 서울과학고 시절의 일화는 하

버드대 합격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에세이’의 소재가 됐다. 고민이던 하버드대 학비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해결해 줬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직전 설립한 과학장학재단의 ‘대통령과학장학금’ 1호 수혜자 중에 이 후보가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장학 증서를 받은 그는 정치인이 된 이후 그때를 ‘운명’으로 표현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노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으로 유명한 부산 명지시장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꿈에 비견될 새로운 꿈을 꾸겠다. 그의 ‘동서 화합’ 꿈을 ‘세대 화합’으로 이어받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박근혜의 보수 정신과 노무현의 진보 정신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유연한 후보임을 과시한 셈이다.

그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뒤 소프트웨어 회사인 ‘클라세스튜디오’를 세웠다. 이 무렵 ‘배나사’ 활동을 병행하다가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띄어 2011년 말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 입성은 쉽지 않았다. 2016년·2020년 총선과 2018년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낙선하면서 ‘마이너스 3선’ ‘0선 중진’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당대표 때 윤 당선, 지방선거 압승 이끌어
하지만 그의 젊은 감각과 참신한 선

거운동 전략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은 조금씩 커졌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으로 활약하면서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지목됐다. 그때의 활약은 그를 최연소 주요 정당 대표의 자리로 이끌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후에도 혁신은 이어졌다. 그는 ‘따릉이’와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했으며 공직자 자격 평가, 대변인 공개 선발 등 개혁 정책을 폈다. 그는 또 ‘선거의 왕’이었다.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던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해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곧이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당내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마침 ‘성 절대 의혹’(이후 무혐의 결론)이 불거지면서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자 탈당했다. 돌아해보면 그 탈당은 이 후보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개혁신당을 만든 그는 지난해 총선 때 경기 화성읍에 출마했다. 절대 열세였던 그는 관내 동탄신도시 100개 아파트 단지를 모두 다니면서 단지별 숙원 사업을 유튜브 채널에 알리는 등의 혁신적 선거운동으로 격차를 좁히더니 대역전극을 펼치며 당선됐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3자 구도에서 이뤄낸 성과였다. 이 후보는 ‘동탄 모텔’로 명명된, 그 역전극을 이번에도 재연한다는 각오다.

“압도적 새로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머리말과 대선 슬로건대로 이 후보는 대선판에 ‘압도적 새로움’을 선사하며 ‘최연소 대통령’ 탄생이라는 역사를 쓸 수 있을까.

박형수·최선욱 기자

“K원전 계약 관둬라” 프랑스의 판지, EU 간부까지 동원

프랑스 출신 부집행위원장이 편지
“한수원, 과도한 정부 보조금” 주장
한수원은 “받은 바 없어” 즉각 반박

한국(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지난해 7월 수주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한국에 밀렸던 프랑스 측의 발목 잡기가 거세다. 13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스테판 세주르네 변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2일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에게 ‘신규 원전 계약 서명 중단’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요청’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프랑스 출신으로 외무장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위반했는지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 컨소시엄의 이의 제기 때문에 2023년 도입된 FSR은 EU 외부의 기업이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역내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수 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만일 (체코·한국이) 최종 계약에 서명하면 EU 집행위가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한수원 컨소시엄이) EU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보조금을 부여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실질적 정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수원과 체코 간 원전 계약을 연기 또는 중단하라는 의미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입찰은 2022년 시작됐기 때문에 2023년 시행된 FSR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체코의 발주처와 정부도 같은 목소리다.

이 때문에 EU가 회원국 중 두 번째 경제 대국인 프랑스의 입김에 프랑스 이익을 대변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서한 발송일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한수원의 계약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날이다.

체코 내에서도 프랑스가 외교적 압

박을 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블체크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체코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한은) 프랑스전력공사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도 이날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민준·김원·임성민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주요	기간	세입자
패어팩스 지역 봄-여름 나눔 집 렌트 리스팅 50여채 있음	4/1~7/31 일주 가능한 집	\$1,800-\$5,200 가격대 렌트 집 리스팅.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올 여름에 파견 나올 주재원 6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6월 말~8월초 입주 희망	\$2,000 ~ \$5,500 가격대 렌트
3618 Cantrell, Fairfax, VA	NEW	2년
6406 Hawk View Ln, Alexandria, VA	NEW	2년
9411 Myra Dr, Great Falls, VA		3년
4658 Braddock Green Ct, Fairfax, VA		3년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1042 Warbler Place, McLean, VA	2/14/2025 입주	3년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명태균에 “당신 만난 건 운명” 문자 보낸 총경, 경무관 승진

명씨 ‘경찰 인사개입’ 의혹 확산
창원서부서 경위도 메시지로 부탁
‘모 총경 정보과장 희망’ ... 실제 발령
경찰 내부, 전격 감찰 착수에 술렁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 관련 경찰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3년 7월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정보과 A경위가 명씨에 자신과 상관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A경위가 명씨에게 “의원(김영선 전 의원을 지칭)님께서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B총경이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을 희망하니 꼭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실제 이후 인사에서 B총경은 경남청 정보과장으로 발령났다.

비슷한 시기 경남청 C총경도 명씨에게 프로필과 함께 “본부장님(명씨)을 만난 건 운명이 저에게 준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

다. 6개월 뒤 C총경은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앞서 관찰서 현안으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B총경과 함께 만났다”며 “인사 관련 얘기가 나왔고 김 전 의원이 ‘어딜 희망하냐’고 물어 B총경이 정보과장 등을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후 상관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명씨에게 ‘정보과장으로 가면 잘할 것’이란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B총경은 “의례적으로 주고받은 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적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씨의 자택·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총경 이상 고위직이 포함된 경찰 및 검찰 인사 수백명의 명함 및 이력서 문치를 확보했다. 이 중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뤄진 인사에서 승진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전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48)씨에게 경찰 인맥을 연결해줬다는 진술도 확보해 통일교 관련 수사를 무마해준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명태균씨 의혹 외에도 브로커를 통한 경찰 인사 청탁 사건은 과거부터 반복됐다. 2023년 호남 지역에선 ‘사건 브로커’ 성모(64)씨가 현직 경찰관 4명으로부터 승진 명목으로 수천만원 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성씨를 통해 청탁했던 전직 경찰관은 통화에서 “인사가 주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당시엔 인맥을 통한 승진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였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권자와 외부인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승진이 주관적 요인보다 시스템이나 규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대선 직후인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 공천 등에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봉화군수·경북도의원·영주시장 등 경북지역 선거 예비후보들의 프로필 등을 권선동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한홍 의원에게 보낸 정황을 확보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탁이 아닌 추천을 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이찬규·손성배·안대훈 기자



청해부대 귀환 ... “아빠 반가워요” 아덴만 해역 파병을 마치고 복귀한 청해부대 44진 강감찬함 장병들이 13일 경남 창원시 진해해군기지에서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해군]

민간에 맡겨졌던 입양, 7월부터 국가·지자체가 관리한다

지자체장이 ‘보호 아동’ 후견인 역할
복지부 산하기관이 입양신청 받아

민간에 맡겨졌 있던 입양 절차를 오는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입양 절차의 기준·절차를 담은 국내외 입양 관련 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14

일까지 모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 입양을 대체하는 공적 입양 절차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간기관이 입양 전 아동 보호와 양부모와의 결연 절차를 맡았지만, 앞으로 지자체의 몫이 된다.

아동 주소지의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돼 적응 상태, 발달 상황 등을 분기

마다 점검한다. 입양기관이 맡았던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심의도 바뀐다.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신청을 받고, 복지부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 상담·조사한다.

아동·양부모의 결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입양정책위원회도 신설된다. 양부모가 이수해야 할 교육, 결연시 확인할 범죄경력 등도 구체화됐다. 사후관

리도 달라진다. 복지부가 최소 1년간 아동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기관들에 흠어져 혼란을 빚었던 입양기록물의 관리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공적 입양으로의 전환은 한국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에 서명한

이후 12년 만이다. 협약에 가입하고도 제때 법을 고치지 못한 사이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정인이 사건’ 등으로 민간 입양의 한계가 드러났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수년간 폐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입양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1인 최대 300만원 → 0원 ... 포항지진 판결 2심서 뒤집혔다

소송 참가자가 역대 최대인 50만 명에 육박하고 배상금 규모도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0원’으로 완전히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49만988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물을 주입한 데 따른 촉발지진 인지 여부, 지진이 물 주입 때문에 발생했더라도 이것이 관련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며 “재판부 검토 결과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앞서 2023년 11월 포항시민 11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원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지진 등 총 2번의 큰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면 300만원, 한 차례만 포항에 있었으면 2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포항에서는 시민 대부분이 항소심에 참여했다. 항소심 참가자는 49만9881명으로 지진 당시 포항 인구의 96%에 달한다. 항소심 판결이 1심과 같이 나올 경우 배상금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항소심 판결 직후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와 포항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오늘 급기야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과 법 감정에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말했다.

판결이 180도 뒤집히면서 들쭉날쭉했던 포항 지역사회에도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300만원을 받으면 가전제품을 마련해야겠다”는 바람부터 “거액이

풀리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시민들의 희망도 김이 새버린 모양새다. 시민 김성규(54·대도동)씨는 “300만원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배상이 이뤄졌다면 요즘처럼 힘든 경기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에 1심 판결이 애초에 잘못됐던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포항 시민은 “지열발전소 건설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하지만 누구도 그걸 예상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1인당 수백만원씩 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매매

-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화장실3.5
-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

렌트

-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 채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화장3.5,차고 2, 입주 4월초
- 우드브리지 \$3,200 방3+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 맥클린 로튼다 콘도 방2+ 화장실 2, 즉시 입주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여보, 담달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래”

전월세 신고제 계도 끝, 내달 시행
30일내 안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갱신 때 임대료 그대로면 안해도 돼
“과세 우려 임대인, 임대료 올릴수도”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 사실상 4년간 유예됐던 제도다. 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서울 마포구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내 공인중개업소에 제도 시행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우편으로도 알리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달 말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미비, 시장 혼란 등의

이유로 4년간 계도기간을 뒀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월세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이후 30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다. 다만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

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정확히 집계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 임차인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과거 신고되지 않았던 계약들도 공개되고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우려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올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고 누락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완화됐고, 위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당초 취지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배달 오토바이 앞번호판, 내달 말 시범사업 시작

법규 위반 급증에 도입요구 커져
참여 운전자에 보험료 할인 혜택
배달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시범사업이 6월 말 시작된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운행 목적에 상관없이 뒤에만 번호판을 달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참여 신청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스티커형 등 여러 형태의 전면번호판(앞번호판)을 부착해 3년 정도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감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번호판을 다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과 무료 오일 점검 같은 혜택을 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직사각형 금속판인 후면 번호판과 달리 부착이 쉽고 충돌 때 부상 위험이 적은 스티커형 등을 앞번호판으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인도네시아는 스티커나 아크릴판 등으로 된 앞번호판을 쓴다. 오토바이 앞번호판은 코로나19 이

후 식음료 배달 증가로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이 급증하자 도입 요구가 커졌다. 또 첨단 기종을 제외한 상당수 무인단속카메라가 앞번호판만 인식 가능해, 뒷번호판만 다는 오토바이는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업용 오토바이 앞번호판의 단계 도입을 약속했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오토바이 앞번호판 의무화를 공약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이천 물류센터서 큰 불 13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화재로 178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 없이 6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물류센터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119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호 기자

대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검찰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서울고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형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한 지 45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련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다. 유족들은 “10·26 사태와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6일 만인 지난 2월 25일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정세내 기자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사진)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2월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허 대표가 상담 등을 빌미로 여성 신도들의 신



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두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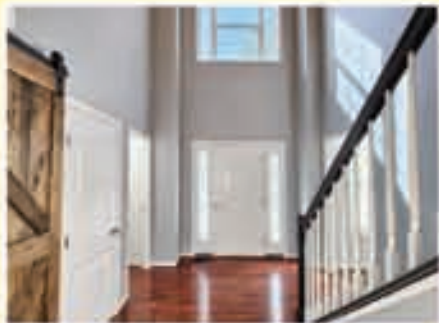
독점

Stafford

싱글홈

완전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2011년 지은 집, 방5, 화장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함, 워크 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719,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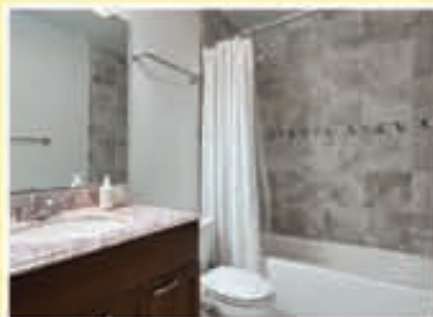
독점

Annandale

타운홈

집 전체 완전히 리모델링한 밝고 예쁜집, 부엌, 화장실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 함, 교통 편리,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단지

\$619,900



Sold

독점

Annandale 타운 콘도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한 타운하우스 스타일 콘도 계단없는 1층, 엔드 유닛, 1,400 sqft, 방2, 화장2 집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한 부엌과 화장실

\$360,000



Sold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54,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우리말 바꾸기

‘부끄러운 정치’에 당부한다

“정치가 부끄럽다.” 몇해전 한 초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꿈꿨지만 쉽지 않았다”며 불출마하겠다는 의원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끄러운 정치가 안 되도록 국민은 두 눈을 부릅떠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의원의 말을 글로 옮기며 ‘부끄러운 정치’를 ‘부끄러 정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두 의원이 우리 정치의 ‘부끄러 속살’에 절망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와 같이 표기해선 안 된다. ‘부끄러’는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부끄럽다’는 비불규칙활용을 하는 형용사다. 어간의 끝소리인 비이 ‘아’나 ‘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선 ‘오’로, ‘어’나 ‘어’로 시작되는 어미와 매개모음을 요구하는 어미 앞에선 ‘우’로 변한다. ‘부끄럽 + --어’는 ‘부끄러워’로, ‘부끄럽 + --으니’는 ‘부끄러우니’로, ‘부끄럽 + --은’은 ‘부끄러운’으로 바뀐다.

이때 ‘부끄러운’을 ‘부끄러’으로 줄여 쓸 수 없다. 어간의 끝소리인 비이 ‘오/우’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들 모음이 줄거나 탈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활용 형인 ‘부끄러우니’를 ‘부끄러니’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비불규칙용언인 ‘가깝다’ ‘쉽다’를 활용한 ‘가까운’ ‘쉬운’을 ‘가깝’ ‘쉽’으로 줄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세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AI 이력서의 그림자



박낙희
경제부 부장

작했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조직자의 약 49%가 이력서 작성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이제는 AI 기반 생성형 도구들이 취업, 이직 준비의 '기본템'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명문대 한인 대학생이 아마존 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개발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정학 처분을 받아 자퇴하고 'AI 부정행위'를 돕는 서비스로 거액의 창업 투자금을 유치해 주목받기도 했다. 면접·시합·통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상대방 모르게 AI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서비스는 도덕적 논란과 함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을 단순히 '부정행위'로 몰아가긴 어렵다. 자신의 능력을 잘 호소하고 싶고 경쟁에서 한발 앞서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AI는 그런 심리를 파고들어 빠르고 편리하게 '완성된 나'를 만들어준다.

문제는 그 ‘완성된 이력서’가 실제의 나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괴리다. 과장된 경력과 부풀

려진 스펙은 오히려 면접장에서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

따라서 구직자는 AI에 전적으로 의존해 자신을 포장하기보다는 사실 기반의 진솔한 표현과 실제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화려한 이력서보다 낮은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진정성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고용주 또한 이력서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실질적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자가 작성한 키워드 하나하나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진짜 인재가 가려낼 수 있다.

AI가 더 정교해질수록 이를 활용하는 구직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채용 방식 역시 이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AI 시대라도 채용이라는 행위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AI로 작성됐든, 면접 답변이 세련됐든,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이력서는 '속 빈 강정'이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

점수를 올리기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점수를 깎아 먹는 이력서가 되지 않으려면 진짜 ‘나’를 담아야 한다. 내 목소리는 나만의 지식과 생각,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무엇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길 바란다.

이아침에

예방주사를 맞다



최숙희

수필가

었다. 나는 먹을 것을 준비하러 부엌에 있느라 부
자시간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자세한 내막
은 모른다. 아빠와 언성이 높아지는 거 같더니 아
들이 제집으로 가버렸다. 다정하고 속 깊은 아이
로 알고 있었는데 가족에게 터놓을 수 없는 가슴
속 응어리와 사무친 서운함이 많았다. 그렇다 해
도 할머니까지 계산 자리를 박차고 나가다니, 이
해할 수 없었다. 남편 얘기로는 출판기념회에서
자기가 비교당했다며 화를 냈다. 예민한 건 알
고 있지만 아이의 속 좁음이 남편을 톡 뺏았다고
생각했다.

아들의 아기 때 찍은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

본다. 눈을 맞추면 세상을 모두 가진 양 행복했지. 아이 덕분에 으스스하며 행복해지고, 겸손을 배우며 불쌍한 주위의 사람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어려서 예쁜 것 한 걸로 평생 할 효도를 다 한 걸까.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을 희생으로 여기며 아이를 나의 분신으로 생각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서운해 했다. 성공한 자식을 이민자의 트로피로 여기며 보험으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 아차피 부모의 품을 떠난 자식, 특히나 아들은 서운할 일만 남았을 터이니 미리 예방주사를 맞은 걸까.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애를 쓰듯 부모도 어느 순간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부모와 자식 각자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의 기대가 그에게 족쇄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내 사랑이 그를 가둬 버리면 안 된다. 내 꿈이 사랑하는 이를 짓누르는 수레바퀴가 되어서는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넌슐라 상담관영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를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금배지 떼면 생활인 복귀 당연, 그래야 국민 눈높이서 정치”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논설위원



21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개혁신당 의원을 지낸 류호정 전 의원은 목수로 전직해 5개월째 일하고 있다. 28세이던 2020년 정의당 비례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그는 2024년 1월 정의당을 탈당해 의원직을 내려놓은 뒤 개혁신당으로 옮겨 성남갑 공천을 받았으나 총선 직전 출마를 포기하고 정계를 떠났다. 최연소 의원이자 제3지대 정치인으로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에 도전했던 그가 기술직 노동자가 된 이유는 뭘까. 남양주의 가구 업체 ‘홈랩스’의 작업장에서 그를 만났다.

“소주 저녁” 익숙…목수 다 됐죠

-목수 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계 은퇴해 실업자가 되니 뭐로 먹고 살까 고민하다 의원 되기 전 6년간 사무직으로 일했으니 이제 몸 쓰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정부의 일자리 지원 카드를 활용해 지난해 7~12월 목공학원에 다닌 뒤 취직했어요. 식욕은 더 왕성해진 것 같아요. 목수업은 아침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먹고 일하면 힘 빠져 다치게 된다는 거죠. 또 일과 끝나면 ‘먼지 많이 먹었으니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목구멍 소독해줘야 한다’는 얘기도 해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소주 저녁’을 하니 적응이 된 거겠죠?(웃음)”

-목수로서 일과는요?
“일감이 없으면 ‘나인 투 식스’지만 밤 11시에 출근해 야근도 하는 등 대중 없어요. 주로 원목 가구를 맞춤 제작하죠. 참여한 제품이 4개쯤 되는데 보름에서 한 달 반까지 걸리죠. 높이 5m의 대형 간살문을 원목으로 만든 게 특히 보람 있었죠.”

-취직은 어떻게 했나요?
“전직 의원 경력에 구직엔 도움이 안 돼요. 업체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다행히 목공학원 다닐 때 학원 선배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업체 사장님에게 ‘최저 임금 받아도 좋으니 일을 배우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목공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학원 졸업하고 일을 못 하면 기술이 썩을 거란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배우는 셈 치고 아르바이트 먼저 해봐라’고 하세요. 그래서 학원 졸업 시점인 지난

해 12월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두 달 같이 일해보면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사장님이 설 직전 ‘2월부터 정식으로 일하면 좋겠다’고 해 취업이 성사됐습니다. 대학 나와 처음 취직했을 때처럼 기뻐요.”

-월급은요?
“최저시급(1만3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적용해 한 달에 210만원 받아요. 5명이 일하는 소기업이라 주 52시간 노동 외엔 노동법 적용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어요. 사장님도 직함만 대표지 노동자처럼 일해요. 복지를 다 챙기다 보면 회사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업 논리에 관대해진 인상인데요?) 정치권에선 노사 사이에서 중도적인 발언을 하면 ‘배신자’라고 하죠.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은 선명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들이잖아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목수 월급으로 생활은 되나요?
“월세로 상가주택에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사는데 방세 등 필수비용으로 150만원 나가죠. (식비는요?) 회사에서 밥 주잖아요. 남은 60만원 갖고 하고 싶은 데 쓰면 잔고가 거의 안 남아요. 목수로 숙련되면 임금이 인상되겠죠.(웃음)”

“의원직, 특위·지역구서 많이 달라”

-정치를 떠난 이유는요?
“국회의원 시절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을 절감했어요. 여야가 상대방 발언 한마디 갖고 1주 내내 공격하다 다음 주 누군가 또 사고 치면 그거 공격하는 거로 세월을 보내더군요. 정책 논쟁 대신 말싸움만 하는 거예요. 저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 의원의 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받고 대답하고, 다음날 또 같은 질문받고 대답하고, 그런 게 쌓여 1년이 가더군요. ‘품평 정치’로 임기를 채우게 되니 회의가 들었죠.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별 게 아니라, 공존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마지막 해(2023년)엔 나부터 바뀌겠다고 마음먹고, 입장이 다른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결론적으로 잘 안 됐죠. 수십년간 쌓인 정치풍토가 저 하나 바뀔다고 변하지는 않더군요.”

-국회의원 시절 기억나는 일은요?
“저출산 대책으로 발족한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의원들이 ‘류호정만 설득하면 성공’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29세로 딱 초혼·초산 연령대였거든요. 내심 맞는 말이라고 생각



류호정 전 의원은 “결과 망치가 익숙해졌다. 국회 밖에 나오니 못 보던 것들이 보인다. 정의당 시절 만든 모임 ‘세 번째 권력’을 통해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회에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김성룡 기자

말싸움 정치로 4년…국회한계 절감 의원들, 지역구 챙기느라 입법 뒷전 몸쓰는 목수로 살며 ‘시민정치’ 할 것

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특위에선 ‘노동·육아·사교육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지역구에는 과하고 유치를 요구하고, 환경노동위 가면 ‘주 69시간 노동’까지 주장하니 특위에서 발언한 거랑 불일치가 넘쳐나는 현실을 절감했죠. ‘오후에 지역구가 야하니 특위에선 오전 질의만 하고 가겠다’는 의원도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내겐 ‘지금 안 넣으면 후회할걸’이라고 모 다선 의원 선배가 말하더군요. 그런 얘기 하느니 특위에서 제시된 해법들을 입법하는 게 훨씬 나왔을 텐데…(입법이 이뤄졌습니까?) 안 됐죠. 그러다 끝났죠.”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제3지대’ 정치인으로 분투했는데요.

“거대 양당의 힘은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간사의 권력에서 확인돼요.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은 간사가 없으니 법안 통과가 극히 어렵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문신 시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할 때 논쟁 문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홍준표 의원에게 대뜸 전화를 걸었죠. ‘문신 문신하신 게 생각나 연락드렸어요’라며 동의를 부탁하니가 그분이 ‘뽕’ 터지세요. ‘법안을 의원실로 보내. 언론에 공개해도 돼’라고 답해주셔서 이슈가 됐죠. 입법은 못 됐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문신 합법화’가 양당 공약에 들어갔죠. 동물보

호법과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법이 어렵게 입법에 성공한 데도 보람을 느낍니다. 덧붙이자면 제3지대 세력은 꼭 필요하다고 믿어요. 다원주의에 기반해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로 타협하는 문화는 정치의 본령이니까요.”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데요.

“저도 노후가 걱정되지만 노후 준비 못 하고 일단 하신 부모님 세대는 연금이 절실한데 세대 갈등으로만 비화해 안타깝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초저출산이니 광범위하게 다룰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갈등만 부추기고 있죠.”

“의원직, 성공 상징 ‘트로피’ 아냐”

-국회를 나온 뒤시야가 달라진 듯합니다.
“의원 때는 매일 답변을 해야 했거든요. 지금은 지켜보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듯해요. 국회에 있으면 매주 지을 책기고, 재선도 신경 써야 하고, 문자 폭탄 스트레스도 받고, 휴대폰 배터리가 실시간 방전되죠.(웃음) 당직과 공천부터 강성 지지층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양극단의 언어 대선 중간쯤에 있는 말이 존중받고, 타협하는 문화가 확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만 하고 입법엔 소홀한 이유는 뭘까요.

“의원들이 대개 월·목요일에만 국회에 있고, 금·토·일요일은 지역구 내려가서 행사 참석·축사·등산 등 엄청난 일정을 소화해야 해요. 그러니 안되는 거죠.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의원 아닌 시민으로서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요?

“기후 위기를 예로 든다면 국가적 해법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재활용 같

은 개인적 실천도 필요하잖아요. ‘나라가 안 해주면 내가 해봐야 소용없다’는 비판주의 대신 개인 단위에서 실천하며 국가에 정책을 압박하는 시민정치가 일상화돼야죠. 그런 생각에서 정의당 시절 제3지대 모임 ‘세 번째 권력’을 조직했는데 지금도 저랑 회원들은 매달 모여 ‘생활 속의 정치’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요.”

-정치를 다시 할 마음은 정말 없습니까?

“국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국회를 겪고 나니 의원 더 한다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 원칙이 성공한 아저씨들이 갖는 ‘트로피’가 돼선 안되고, 임기 끝나면 생활인으로 돌아가는 관행이 정착돼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들 인식이 시민 눈높이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이번 국회에서 특히 아쉬운 게, 20대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에요. 20대는 좌고우면할 인맥이 없으니 옳은 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에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헌내고 탄핵하면서 출탄핵을 밀어붙인 국회도 같이 흔해졌어요. 계엄이 부적절한 것과 별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 반감도 상당하며 정치가 더욱 양극화됐다는 의미라 실망스럽죠.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들 서로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갈등하는 정치가 반복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현재가 훈계한 문장의 주어만 달라지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UNDER CONTRACT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맛
집주인이 관리 잘 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UNDER CONTRACT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 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애난데일 싱글홈 \$880,000	버크 싱글홈 \$1.25M
방3, 화3, 0.46 에이커 굿 로케이션 새지붕, 울수리한 집	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술이 아름다운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참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시 설

사법부 목줄 쥐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제시켜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개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어제 “특검법과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내일(14일)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오늘 열리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불참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관의 청문회 참석과 재판 관련 수사를 대수롭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결도 놀랐긴 했지만,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원칙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여론 또한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특검팀의 수사, 대법관 수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이 보통 일인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해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법 개정을 이토록 급박하게 주장할 수 있나. ‘국정감사·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은 왜 유지됐겠는가.

모든 것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노골적 불신에서 파생된 일이란 걸 국민은 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에 벌어진 폭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지만 민주당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대선 이후에도 사법부 목줄을 계속 쥐려는 민주당의 포석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가 확정됐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후보는 지난 9일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체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다.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최후의 보루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총공격 지시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

대선 후보 1인을 위해 헌법 원칙을 훼손한다는 오해는 중도층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 후보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삼권분립 원칙 훼손 등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국민은 불과 한 달여 전에 목도했다. 당시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조인에 대한 위치 파악에 관여한 것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고 범치국가 원리의 기본 요소인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률가인 이 후보가 나서서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을 자제시키길 바란다.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에 민주당 특검 압박
후보 1인 위해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할 건가

한숨 돌린 관세 전쟁, 선택과 집중의 협상 전략 필요

미국과 중국이 엇그제(12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90일간 관세 대폭 인하에 합의하자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일각에선 미국이 대중 관세를 대폭 인하(145%→30%)하자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출 여지가 생겼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미국이 영국·중국과 합의한 무역협상 결과를 보면 ‘기본 관세 10% 고수’가 미국의 입장인 듯하다. 영국은 소고기·에탄올·농산물·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렸지만, 기본 관세 면제는 받지 못했다. 중국 역시 관세율은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합성마약 원료(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와 함께 10%의 기본 관세는 유지됐다.

앞서 미국은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기본 관세 외에 나머지 14%에 대해서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일본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해 지난 4월 ‘2+2 고위급 통상 협의’ 이후 협상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가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로서는 각국의 협상 진행 추이를 면밀히 살펴 스마트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한

국은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대중국 수출통제 같은 경제안보 협력 등이 그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특별한 뭔가를 해주면 (기본 관세 적용까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우선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25%)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해야겠지만, 자동차·철강 등 주력 대미 수출품목의 관세 면제 또는 인하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고민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주교받기식 협상을 통해 자동차는 기존 25% 관세 대신 일정 쿼터에 대해 저율 할당 관세(10%)를 받았고, 철강·알루미늄은 적용 예외가 됐다. 일본 또한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 면제를 목표로 협상 중이다. 우리도 뭘 내주고 뭘 받을지, 그 결과 국내 산업이 받을 영향은 어떻게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내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 소지도 있는 만큼 그 대책도 미리 세워둬야 한다.

최근 한국의 대미 수출 상황은 좋지 않다. 미 상무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10대 대미 수출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감소(1.3%)했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같은 주력 품목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현명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국의 행기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인질 정치, 더럽혀진 이름 보수

안혜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정치 시즌답게 SNS 피드가 대선 관련 각종 밈과 찰로 어지럽다. 그중 “대구에선 1번 찍는 게 습관화, 이번에도 1번 찍으면 된다”는 큼지막한 글자가 박힌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확대해 보니 2017년 대선 당시 원내 1당이라 기호 1번을 받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박영선 공동 선대위원장 발언이었다.

무조건 보수 정당만 찍는 대구를 조롱하려는 의도로 올린 듯한 8년 전 옛 사진 포스팅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전라도는 그럼 습관대로 (보수가 의석수 우위였던 시절 민주당 기호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찍어야지.”

‘진영 간 묻지 마 투표’라는 한국 정치 요약본 같아 혼자 피식 웃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다. 과거엔 이렇게 대구와 호남이 보수와 진보를 자처하는 거대 기득권 양당의 인질이 돼 고통받았다면, 지금은 사실상 전 국민이 인질 잡힌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선거철엔 어김없이 “보수의 심장”이라느니 “민주화의 성지”라며 대구와 광주(호남)를 추앙하는 척했다. 하지만 “전략 투표” 운운하는 협박성 정치 공학을 앞세워 다른 정치적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지역 핵심 지지층 유권자들의 물표를 받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외면하기를 반복했다. 그 결과 대구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은 30년째 17개 시도 평균을 한참 밑도는 꼴찌고, 광주는 복합 쇼핑몰 하나 없어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등장했을 만큼 경제적으로 낙후했다. 실질적인 일당 지배 체제라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 없는 토착 비리도 빈번하다. ‘인질 정치’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치적 양극화와 국가적 경제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만 챙기는 이런 ‘인질 정치’가 영호남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 남발과 법관 압박으로 ‘행정부 무력화와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 눈

엔 지난 10일 한밤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 막장극을 펼친 국민의힘이야말로 ‘인질 정치’의 끝판왕으로 보일 법하다. 특히 평소 보수적 가치를 존중했기에 마음 둘 데 없는 적잖은 보수층 입장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저 보수를 불모 삼은 빌런(악당)일 뿐이다.

온 국민에게 생계계됐듯이 국민의힘 지도부(비대위)는 당내 경선으로 뽑힌 김문수 후보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후 10일 새벽 무슨 비밀 군사작전하듯 밀실 결정으로 딱 한 시간만 후보 등록을 받아 한덕수 전 총리의 입당원서와 대선 후보 등록 서류를 동시에 받았다. 당내 경선 참여는커녕 당원조차 아닌 사람, 게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책임을 나눠 져야 할 인물을 대선후보로 무임승차시키려다 망신을 넘어 신뢰를 잃었다.

이 사태의 주역이자 “알량한 후보 자리” 어찌고 하며 김 후보를 모욕하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후보 교체 무산 후 급표변은 그리 놀랍지

핵심 지지층 불모 삼은 거대 양당
국힘, 보수 가치 대신 협박 일삼아
무슨 염치로 이준석 완주 막을까

않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나 투명한 공정성 원칙 같은 보수적 가치는 진작에 내다버려 보수라는 이름을 더럽힌 이들이 ‘이재명 포비아’를 자극하며 보수층에 또 표를 구걸하는 걸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다. 권 원내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 이 되자마자 “김문수나 이재명이나 대한민국 전쟁이 시작됐다”며 공포 마케팅부터 꺼냈다.

위낙 강렬했던 막장극 덕분에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의 강성 친윤 색채는 자연스레 열어지고 고난 극복 피해자 서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김 후보 역시 그제(12일) 떠밀리듯 계엄에 대해 처음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나 법원 테러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의 절연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보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런 당과 후보가 “우파 표 나뉘면 안 된다”며 협박하는데 보수는 표를 쥐야 하나. 보수 표, 당신들이 맡겨준 적이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완주를 기원한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전담경제채널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게이트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5월 스페셜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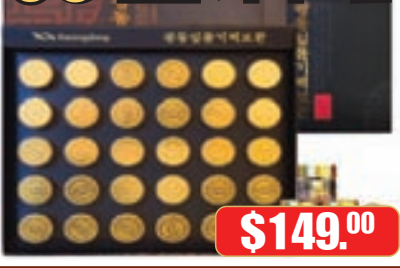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8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고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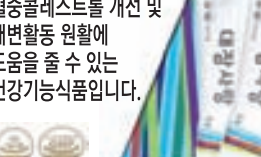


캐변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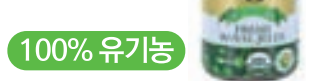
여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콜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프로바카리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당케어골드



징코크린 정



농협용삼
한삼인



100% 홍삼즙 60포/30포

디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기력회복 / 면역력증진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이 거칠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호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자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화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때,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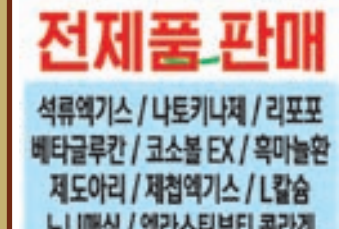
1달에
글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백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옥마놀한
제도아리 / 재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부티콜라겐

천연 자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봄이면 ‘긁적긁적’ ..자외선차단·보습제로 활용해

가려움증 유발하는 대표 원인

봄철 피부는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건조한 공기와 큰 일교차, 미세먼지 등 외부 자극에 맞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게 가려움증(소양감)이다. 가려움증은 대부분 히스타민이라는 염증 매개물질 때문에 생긴다. 피부에서 지방 분비량이 줄고, 수분은 빠르게 증발하면서 가려움을 잘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동반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피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다. 주로 소아기에 발병하며, 국내에서만 약 100만 명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하다. 이들이 느끼는 가려움증은 차원이 다르다. 온몸을 종일 긁어도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 피부를 계속 문질러 생긴 상처에 균이 침투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문제다.

고려대 안암병원 피부과 김대현 교수는 “소아는 팔 안쪽이나 무릎 뒤처럼 신체가 접하는 부위에 병변이 잘 생기고, 성인이 되어서는 피부가 직접 두꺼워지는 태선화 증상이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아토피 피부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다만 이것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증상이 잘 조절되면 보습제 도포와 같은 기본적인 대처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이 권고하는 ‘아토피 예방 관리수칙’에 따르면 보습제는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목욕 직후에 바르는 것이 도움된다.

샤워 때는 미지근한 물로 10분 안에 씻고, 샤워 직후 3분 이내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면 괜찮다. 실내 습도도 중요



하다. 가슴기를 쳐두거나 젖은 수건을 넣어 놓으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실내 습도는 40~50%가 적절하다.



일광 두드러기

‘봄별에는 머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별에는 팔을 내보낸다’는 말이 있다. 봄별이 가을별보다 해롭다는 뜻인데, 실제로 그렇다. 봄철 자외선은 여름 못지않게 강하다.

특히 겨우내 약한 자외선에 적응했던 피부가 봄철 강한 자외선에 더 큰 자극을 받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럴 때 흔히 발생하는 게 일광 두드러기(햇빛 알레르기)다.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해 물리적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상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가렵거나 빨개지면서 좁쌀 크기의 발진과 물집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통상 수시간 내에 완화된.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제와 경구 약제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광 두드러기는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햇빛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다. 태양광이 강한 시간대(오

전 10시~오후 3시)엔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자외선 차단제는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적이다.



기타 전신 질환

피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가려움증이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 내과 질환이 원인일 때다. 가려움증으로 피부과를 찾는 환자의 약 20%가 내과 질환을 진단받는다. 김혜성 교수는

“6주 이상 이어지는 만성 가려움증은 피부 질환 외에도 전신 질환인 만성 콩팥(신장)병이나 간 질환, 당뇨병 등과 관련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을 땐 전신에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 콩팥이 거르지 못해 쌓인 ‘요독(尿毒)’ 때문이다. 체내 독소인 요독은 피지선을 위축시켜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간 수치가 높은 만성 간 질환자도 패턴이 비슷하다. 간(肝)·담도에 이상이 생기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고 정체돼 온몸이 가려울 수 있다. 피부 세포가 건조해져 가려움증을 잘 느끼게 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간 질환이 가려움증의 원인일 경우 주로 황달과 손바닥 홍반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원인 질환을 찾았다면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만성 가려움증은 항히스타민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뎀 면역조절제나 감각신경 조절제 등을 사용해 가려움증을 치료한다.

신영경 기자

가려움증 유발하는 원인 질환	가려움증 자가 진단 리스트
피부 질환 • 아토피 피부염 • 일광 두드러기 • 피부 건조증 • 결절성 소양증	☐ 6주 이상 가려움증이 지속한다. ☐ 가려움증으로 밤에 자주 깬다. ☐ 긁어도 해소되지 않는 가려움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 긁은 부위의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결절이 생겼다. ☐ 긁은 부위의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결절이 생겼다. ☐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도 가려움증이 나아지지 않는다.
피부 외 질환 • 만성 콩팥병 • 만성 간 질환 • 당뇨병 • 감광성 기능 항진 또는 저하증	☐ 피부는 멀쩡해 보이는데 가려움증만 극심하게 나타난다. ☐ 가려움증이 시작되기 전 새로운 약물을 복용한 적 있다. ☐ 가려움증과 함께 체중 감소, 어지럼증, 피로, 심한 갈증, 황달 증상이 동반된다. ☐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도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한다.

자료: 김혜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The Law Offices of Ronald S. Canter, LLC
로날드 센터 로펌
신지상 변호사

무료상담 (상법/상해/채무&채권 소송)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디씨,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 가능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erllc.com
301.545.2726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퍼스트 홈케어
홈케어 에이전시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룸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빌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잘 때 몸부림 심해지면 ‘파킨슨병’ 의심

파킨슨병은 치매·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질환이다.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파킨슨병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완치법이 없는 파킨슨병은 조기 발견을 통한 약물·운동 치료로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파킨슨병은 뇌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돼 운동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파킨슨병에 더 주목해야 한다. 고

려대 안산병원 신경과 권도영(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정칙이사) 교수는 “국내에서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병으로 진단받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1~2%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던 세계적인 권투 선수 알리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파킨슨병을 앓았다.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로 발병

신경계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은 시나브로 진행돼 언제 발병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고령층에서 주로 생기는데 도파민 신경 세포가 60% 이상 줄어야 몸이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파킨슨병으로 의심되는 이상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 손발이 떨리거나 ▶동작이 느려지고 ▶몸이 뻣뻣해지는 등 운동 기능 이상이 나타났을 때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한준 교수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몸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뇌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점진적으로 줄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파킨슨병을 의심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떨림이다. TV를 보거나 자리에 누웠을 때처럼 안정된 상태에서 한쪽 손발을 무의식적으로 떤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대칭적으로 떠는 것이 특징이다. 식사할 때 숟가락을 들거나, 글씨를 쓰려고 연필을 쥐는 등 손에 물건을 잡고 있으면 떨림 증상

고령 인구에서 발병률 증가해 행동 느려지고 손 떨림 증상 생겨 노화로 생각해 진단 치료 늦어져

이 사라진다. 행동도 느리고 둔해져 세밀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단추를 채우거나 요리 재료를 손질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식이다. 표정이 점차 없어져 화난 것처럼 보이고 말소리도 작아진다.

걸음걸이도 변한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면서 두 다리를 벌리는 보폭이 좁아져 종종거리며 걷기 때문이다. 걸을 때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머뭇거리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섬세한 동작 연결이 어려워 첫발을 떼기 어렵고, 걷는 도중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췄다가 다시 걷는다. 잠꼬대가 심한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잠을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큰 소리로 중얼거리거나 과격하게 팔을 휘젓고 발을 걷어차는 행동을 한다. 렘수면행동장애(RBD)인데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는 팔다리 근육이 마비돼 움직일 수 없다. 중앙대병원 신경과 신혜원 교수는 “렘수면 행동장애는 파킨슨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파킨슨병이 더 진행하면 혼자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어져 결국 치매처럼 장기적 돌봄이 필요해진다. 권 교수는 “손이 떨리고 걸음걸이가 변하고 행동이 둔해져도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지내다가 뒤늦게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치료 늦어지면 돌봄 필요해

파킨슨병은 뇌에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을 먹고 근력·유연성 등 신체 능력을 개선하는 운동 치료가 필수다. 현대 의학으로는 아직 도파민 세포의 사멸을 막는 등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약물·운동 치료로 질병 진행을 늦추면서 떨림, 근육강직, 보행장애와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고혈압·당

뇨병 같은 만성질환처럼 평생 관리하면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 목표다.

중요한 건 도파민 약물치료 기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파킨슨병 치료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도파민 계열의 약은 증상 완화 효과가 뛰어난 편”이라며 “약물치료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파킨슨병 증상이 호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5년 정도 지나면 약효 소진 현상(wearing off)으로 인해 약 효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간격이 6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짧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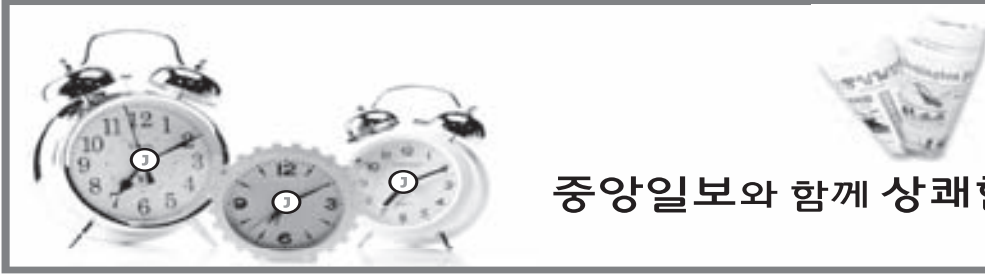
파킨슨병 예후는 약효 소진 현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약효 지속 시간이 줄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어떨지, 다음번 약을

먹기 전에 언제 어떻게 몸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면 도움이 된다. 김 교수는 “증상에 따른 약 처방 용량 조절로 10년이 지나도 약효 소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약물치료로 더는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끄거나 움직이는 이상운동증이 생기면 수술적 치료인 뇌 심부 자극술을 고려해야 한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는 “떨림 증상이 심할 땐 뇌 특정 부위에 전극을 넣고 전기 자극을 지속해서 전달하면 운동회로의 비정상적 주파수를 안정화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걷기·태극권·요가·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은 근육이 경직되고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꾸준한 운동 재활은 질병 진행을 둔화시켜 신경 퇴행을 예방할 수 있다. 또 한 쪽으로 몸이 기울는 증상을 통제하고, 관절 가동 범위도 늘려줘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이 수월해진다.

처음엔 손가락·발가락 등 작은 근육부터 큰 근육으로 운동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 있는 자세가 불안정하다면 낙상 방지를 위해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운동하는 게 낫다.



아침을 부르는 소리~

중앙일보와 함께 상쾌한 하루를 보내세요~~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외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부정맥 가진 분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면 충분해요

오일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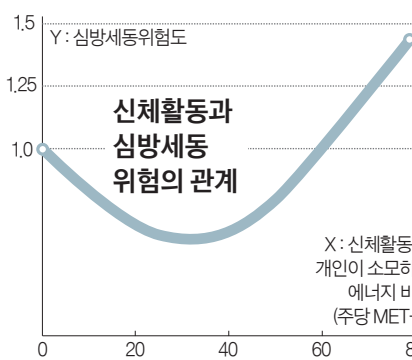
부정맥으로 외래를 방문한 분들에게 가장 흔히 듣는 질문이 “운동은 해도 되나요”이다. 대개는 운동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운동해도 된다고 말씀드린다. 그럼 이어지는 질문은 “아무 운동이나 막 해도 되나요”이다. 웃으며 “어떤 운동을 하시려고요”라고 되묻는다. 나이가 지긋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으실 것 같은 분들에게는 “하고 싶은 운동 모두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다. 2021년 대한부정맥학회 심방세동 진료지침(그림)에서 심방세동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최적화하라고 하고 있고, 의사들은 적당한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최적화’ ‘적당한 운동’, 참 어려운 말이다. 부정맥을 가진 분들, 더 나아가 심혈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나 다뤄보고자 한다.

신체활동과 심방세동의 관계는 ‘J곡선’
유럽 예방 심장학회지에 2018년도에 C리치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체활동과 심방세동 위험의 관계는 J곡선이다. 신체활동이 많아질수록 처음에는 위험도가 감소하지만 일정 운동량 이후에는 위험도가 증가한다. 이 위험도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온 결과이고, 위험도가 1 이상이 되는 신체활동은 운동하지 않는 것보다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즉 혹 때려고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혹이 커지는 것이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5~19 MET-h/주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방세동의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다는 것이니 이 정도의 운동량이 적절한 운동량이 되겠다.

그렇다면 MET(Metabolic Equivalent Task, 대사당량)-h는 무엇

운동 과학계 하면 심방세동 위험 등에 살짝 땀날 정도로만 걸어야 매일 몸이 흠뻑 젖도록 운동하면 운동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빠



인가. 활동할 때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이 한 시간 동안 1MET를 사용하는 활동을 하면 60kcal가 소모된다. 이는 조용히 앉아있을 때 사용하는 에너지와 비슷하다. 대개 가벼운 운동은 3MET, 중강도 운동은 6MET, 격렬한 운동은 10MET 정도이다. 쉽게 표현하면 가벼운 운동은 등에 가벼운 땀이 날 정도, 중강도 운동은 몸 전체가 꽤 젖을 정도, 격렬한 운동은 전신이 젖고 숨이 헐떡일 정도라고 하겠다. 중강도 운동을 한 시간 했다면 6MET-h에 해당하고, 그만큼 저강도 운동으로 도달하려면 2시간을 해야 한다.



등에 가벼운 땀이 날 정도로 하루 20~30분 빠르게 걸으면 5~19MET-h/주에 해당하는 운동량에 해당하고, 이 정도의 운동으로도 가장 흔한 부정맥인 심방세동의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몸이 흠뻑 젖을 정도의 운동(중강도 이상)을 하루 30분 정도를 매일 하면 대략 20MET-h/주 이상이 되어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심방세동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가벼운 운동은 하루 한 시간 매일,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30분 정도, 매일 보다는 주4~5회가 적당하다는 의미다. ‘적절한 운동’을 정하는 것은 너무 어

렵다. 나이와 가진 질환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과체중, 비만이 있어서 체중 조절을 목표하고 있으면 달릴 수 있다. 일반적인 원칙은 운동의 강도가 낮은 평지 1만보 걷기는 비효율적이고, 약간은 언덕이 있는 혹은 약간의 속도가 있는 빠르게 걷기는 추천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등에 가벼운 땀이 날 정도까지 그 속도를 조절할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최대한 몸에서 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지나치게 숨이 찬다거나 두근거림·어지럼증·흉통 증상이 있다면 운동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 운동량을 늘리려고 한다면 이런 증

상이 있기 전까지 운동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해, 한 번에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상이 있는 것을 견뎌가며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는 방식은 몸이 젊을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다. 가장 나쁜 방식은 갑자기 운동의 강도를 올리는 것이다.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신호등이 바뀌는 시점에 뛰거나 앉았다가 빠르게 일어나는 움직임은 심장에 걸리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일이다.

낮시간 식후 30분~60분 뒤 운동
운동의 시기는 온도가 낮은 아침보다는 해가 떠서 어느 정도 온기가 있는 시간에 식사 후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뒤에 할 것을 추천한다.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조금 빠르게 걷는 것도 좋다.

주로 유산소 운동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근력운동도 중요하다. 다만 근육을 키우기 위한 무리한 무게의 운동이 아니라 근력 유지를 위한 가벼운 실내 근력 운동을 추천한다. 무리한 무게를 드는 근력운동은 심장에 미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빠른 움직임을 하는 것과 같이 위험할 수 있다. 가벼운 무게에서 조금씩 높여야 하며, 무거운 무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불혹(不惑)의 나이를 넘어 서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을 생각하며 신체활동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오일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부정맥 중재시술 인증의로 부정맥 환자 시술 및 치료에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대한부정맥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건강 칼럼

올바른 치과 치료계획의 선택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바른 부지의 선정과 설계과정이다.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야 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설계자와 의논해야 한다. 신축이 아니라, 오래된 집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건축

주와 설계, 시공자가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다. 건축주가 바라는 바를 충분히 전달해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개보수 계획을 잡아야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이다. 치과 치

료 특성상 신축보다는 개보수에 가깝다. 아무리 환자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타고난 신체적 특성을 치과 의사가 전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본인의 문제와 바라는 바에 관해서 치과 의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이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환자의 바람

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한다. 하지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각각의 해결방법이 가지는 장단점이 분명하며, 그로 인한 치료 결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치과 의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라 해도, 치료의 주체인 환자가 원치 않거나, 여러 다른 이유로 감

당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본인의 문제와 그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 각각의 장단점과 한계, 또 치료비용에 관해서도 충분히 함께 의논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치료가 끝난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초원 회장 / Joon Choe DDS MS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메트로 앞 7700 건물 6층**

뼈에 구멍 ‘충충’ 골다공증 환자 칼슘 챙겨도 카페인 과하면 말짱 도루묵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진 상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뺨속에 구멍이 많아져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고관절 골절은 사망과 직결될 만큼 치명적이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16%에 이를 정도다. 넘어져도 걱정 없는 뼈 건강, 운동만큼이나 식단도 중요하다.

골 형성 높이는 식단 중요해
칼슘, 비타민D와 같이 먹으면
흡수율 올라가 더욱 효과적
배출 막으려면 염분 섭취 줄여야

구이에 칼슘을 포함한 케일 샐러드를 곁들이면 뼈 건강에 더욱 효과적인 한 끼가 된다. 여기에 운동까지 병행하면 몸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는 상태가 된다.

부족한 칼슘을 보충제로 채우는 사람도 많다. 이때 칼슘 보충제를 과도하게 먹으면 체내에 흡수되지 않은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 속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신장 결석의 위험이 커진다. 이를 예방하려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800~1200mg 내로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 **틈나면 커피·탄산음료 ‘벌칙발격’**

반대로 골다공증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촉진하는 음식이다. 짠 음식이 특히 그렇다. 염분 섭취가 늘면 신장은 소변을 통해 나트륨 배설을 늘리는데 이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간다. 보통 한국인은 국물 요리를 통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한다. 일반 국·국탕보다 작은 밥공기에 국을 덜어 먹고, 조림 대신 찜이나

구이 등의 조리법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카페인도 든 커피와 초콜릿, 차, 탄산음료 등의 과도한 섭취도 칼슘 배설을 촉진할 수 있어 자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한 성인의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이지만,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카페인 수준은 하루 330mg 이상이다. 일반 커피 전문점의 커피 한 잔에는 보통 100~300mg가량의 카페인이 포함된 만큼 섭취량을 따져가며 마시는 게 좋다.

참고자료=대한영양사협회



기고 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하루 10번 과일·채소 먹으면 암 예방”

10명 중 7명 과일·채소 권장량 미만 섭취
착즙주스 등 손쉬운 섭취법 실천하면 도움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서양 속담이 이제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

세계암연구기금(WCRF)을 비롯한 국제기관은 과일과 채소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 파이토케미컬 등 식물성 식품에 포함된 생리활성 성분이 대장암·식도암·인두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들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염증을 줄이며, 결국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그중에서도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나다 암협회는 과일·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14종 이상의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WCRF는 암 예방을 위해 매일 과일·채소·통곡물·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은 체중 증가와 비만 같은 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비만은 13종 이상의 암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식탁에는 여전히 과일·채소가 부족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 400g 이상의 과일·채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장암과 위암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암이다. 충분한 과일·채소 섭취는 대장암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비전분성 채소를 적게 섭취할수록 대장암 발

생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암과 후두암 등 호흡기계 암 역시 채소 섭취와의 관련성이 제시되고 있다. 면역학자인 캐나다 딜리 연구센터의 브래드 넬슨 소장은 “하루 10번의 과일·채소 섭취가 암의 절반 이상을 예방한다”고 말한다.

물론 끼니마다 신선한 과일·채소를 챙기기는 쉽지 않다. 다양한 섭취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한데, 착즙 주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당근·케일·사과 등을 넣은 한 컵의 착즙 주스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파이토케미컬이 고루 함유돼 아침 한 끼로도 충분하다. 브로콜리·케일·양배추 등은 강력한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암 예방에 유익한 채소로 꼽힌다.

특정 채소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하루 세 가지 이상) 과일·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 착즙 주스와 생채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일·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하루 5번 이상, 총 2~4컵 정도를 권장 섭취량으로 제시하는 기관도 많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평소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 미래의 몸을 만든다. 오늘부터 밥상에 채소 한 접시를 더하고, 간식 대신 과일 한 조각을 섭취해 보자.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는 것도 꾸준한 실천의 열쇠가 된다.



추천 밥상

자료: 박형 한양대병원 영양팀 영양사

	검정콩밥	버섯들깨탕	우유계란찜	무생채
재료	검정콩 10g 쌀 60g	버섯(표고 등) 50g 들깨가루 30g 멸치육수 200mL 대파 10g 다진 마늘 2g 국간장 5g	계란 1개 우유 40g 소금·후추 소량	무 50g 고춧가루 2.5g 식초 2g 설탕 1.5g 멸치액젓 2.5g
tip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틴산을 없애려면 조리 전 미지근한 물에 콩 12시간 담그기	버섯 속 비타민D는 들깨가루 등 지방을 함유한 음식과 먹으면 흡수율 ↑		나트륨 줄이려면 액젓은 적게, 식초·고춧가루로 간 조절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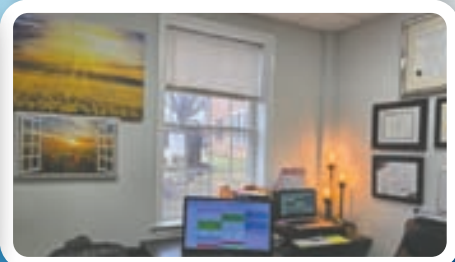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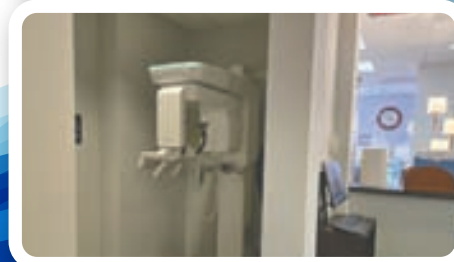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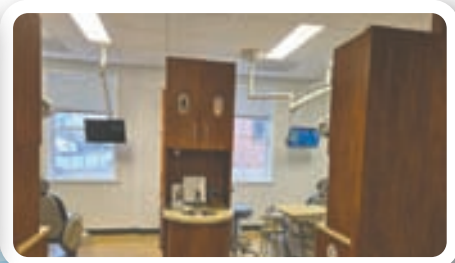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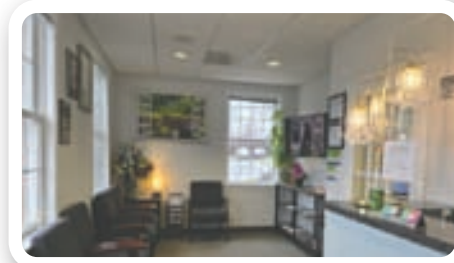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이드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Anthem(Liberty) ●Aetna ●Humana ●United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123 Ox Rd

Braddock Rd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편안한 노후 보장 ‘매직 넘버’ 126만 달러

노스웨스턴 뮤추얼 이달 조사
인플레이션 완화해 20만불 줄어
연소득 10배 이상 저축 8%뿐
소셜연금·인플레이션 최대 걱정

은퇴 후 편안한 삶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매직 넘버’가 126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20만 달러 줄어든 수치지만 실제 저축액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난 14일 노스웨스턴 뮤추얼이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은퇴 자금 목표가 낮아진 것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126만 달러는 2022년과 2023년 수준과 비슷하다. 이번 조사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전에 실시한 것이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존 로버츠 최고현장책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며 은퇴 자금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은 은퇴 기간 매년 은퇴 전 소득의 80% 수준을 저축하라고 권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현재 은퇴 자금과 목표 금액 사이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연소득의 10배 이상을 저축한 이들은 9%에 불과했다. 가구 평균 연소득이 약 8만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매직 넘버’를 충족하기 위해선 약 120만 달러, 즉 연 소득의 15배가 필요하



다.

은퇴 자금을 다 쓰고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51%나 됐으며 이 중 35%는 이에 대비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죽기 전에 자산을 다 써버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확신하는 이들은 16%에 불과했다.

은퇴 자산이 있는 4명 중 1명은 현재 연소득 수준의 1년 치 이하만 저축해둔 상태였다.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이들의 은퇴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

가들은 65세 도달 인구가 매일 1만 명 이상에 달하는 ‘피크 65(Peak 65)’ 시기는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 준비의 핵심 요소인 의료비 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65세로 은퇴한 경우, 의료비로 평균 16만5000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조사에서 일하는 연령대는 평균적으로 31세에 은퇴 저축을 시작해 65세에 은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징적인 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저축을 더 빨리 시작하고 더 이른 은퇴를 계획하며 기대 수명도 더 높았다.

1997년~2012년에 태어난 Z세대는 평균 24세에 저축을 시작했으며 61세 은퇴를 목표로 했다. 34%는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반면, 1946년~1964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37세에 저축을 시작했으며 72세 은퇴가 목표였다. 100세까지 살 것이라 보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세대는 1965년~1980년생인 X세대였다. 이들은 연금 없이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첫 세대다. X세대의 52%는 현재 저축액이 연간 소득의 3배 이하였다. 54%는 은퇴 시점까지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Z세대(37%)나 밀레니얼 세대(46%)보다도 높은 수치다.

로버츠 최고현장책임자는 “X세대는 준비는 부족한데 은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X세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X세대 중 연간 소득의 10배 이상을 저축한 이들은 6%에 불과했다. X세대의 48%는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할 계획이며 이들 중 56%는 경제적 필요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미국인의 평균인 40%보다 높은 수치다.

로버츠 최고현장책임자는 Z세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Z세대는 더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투자를 늘리며 다양한 부의 축적 방식을 탐색하고 있다”며 “다른 세대보다 더 낙관적이며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존속 여부와 은퇴 후 인플레이션이었다. “사회보장 연금이 내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3%가 우려를 나타냈고 30%는 은퇴 후 인플레이션 상승을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안유희 객원기자

사회보장국, 언론·국민 소통 ‘X’로 공식 전환

보도자료·웹사이트 대체 공보 담당부서 운영 중지

사회보장국(SSA)이 앞으로 전통적인 보도자료나 웹사이트 대신 SNS 플랫폼 ‘X(옛 트위터)’에 공지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SA의 린다 커-데이비스 중서부 지역 책임자는 지난 11일 직원들과의 전

화 회의에서 “이제 우리 기관은 언론과 대중에게 X를 통해 소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X가 주요 소통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 관련 뉴스를 다루는 ‘연방 뉴스 네트워크’(FNN)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전국 사무소에 대면 업무 인력이 재배치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담당 인력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사무소는 공보 업

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커-데이비스 책임자는 “그동안 보도자료나 서한을 통해 정보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SSA의 공식 X 계정을 팔로우하시길 권장한다”며 “이 방식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SSA가 공식 웹사이트에 마지막으로 올린 보도자료는 지난해 3월 27일자

로, 일부 지역 현장 사무소가 폐쇄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해당 공지에는 SSA의 공식 X 계정 링크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X를 통해 언론과 대중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안내가 담겼다.

SSA는 소셜연금 수령자의 신원 검증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 최근 일부 내용을 철회하면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SSA는 “사무소를 영구 폐쇄할 경우, 해당 지역의 연방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기존 직원들은 다른 사무소로 재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사무실의 임대 계약이 종료될 수는 있으나 이는 대면 서비스에서 가상 청문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미구한방병원 방영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미리 대본을 읽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다.”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은 송승환(68)은 자신의 여정에 대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삶의 대본”이라고 했다. “어느 순간 가파르게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난타’처럼 계획대로 착착 이뤄지기도 했다”면서 “내 삶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너무 리얼리티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그가 예술감독으로 있는 서울 대학로 PMC프러덕션 사무실에서 송승환을 만났다. PMC프러덕션은 우리나라 대표 난버벌 공연 ‘난타’의 제작사다.

알려진 대로 그는 시력이 떨어져 장에 판정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기자와 눈을 마주치며 자연스레 이야기를 이어갔다. 명함의 글씨를 정확히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의 시력이 떨어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송승환은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적응한 상태”라고 했다. 최근 의사 소견에 따르면 병의 진행이 느려져 그가 완전히 실명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한다.

60년 여정 키워드, 난타 그리고 에쿠우스

송승환은 1965년 KBS 라디오 드라마 ‘은방울과 차돌이’에서 ‘차돌이’ 역으로 데뷔했다. 당시 8세였다. 이후 연극 30여 편, 영화 20여 편, 드라마 70여 편에 출연하며 무대에 족적을 남겼다. ‘젊음의 행진’ ‘가요톱10’ ‘장학퀴즈’ 등의 MC로 활약하기도 했다.

공연 기획자로서도 역사를 썼다. 1997년 초연한 ‘난타’의 누적 관객은 지난해 말 155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뿐 아니라 61개국 326개 도시에서 현지 팬과 만나며 ‘K포포먼스’ 상징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아 드론 요원기, 증강현실 별자리 등 올림픽사를 빛낼 명장면을 만들기도 했다.

술한 성공을 이뤘지만, 그의 표현대로 “가파른 곤두박질” 시기도 있었다. 방송가와 연극 무대를 누비며 ‘청춘스타’ 자리에 올랐다가 1985년 돌연 미국 뉴욕으로 날아갔다. 부친의 사업 실패가 가장 큰 이유였다. 송승환은 “화려한 전성기가 갑작스레 막을 내렸고, 나는 모든 것을 내던진 채 머나먼 뉴욕으로 떠났다”고 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엔 눈앞이 흐릿해졌다. 당시를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느닷없는 급강하가 시작됐다.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은 눈앞 30cm로 제한됐다.”

연극 관객들은 눈치 못챘다



송승환은 시력이 떨어졌지만 ‘어두운 세상’을 살아낼 방법을 찾아 적응하고 있다. 연기도, 기획도 멈출 생각이 없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내가 30cm만 볼 수 있다는 걸

공연기획자·예술감독 등 이름 앞에 여러 수식어가 붙지만, 송승환은 ‘배우’를 자신의 천직이라고 했다. “연기할 때 가장 순수해지고 연기에 몰입하는 순간이 좋다”면서다. 그는 자신의 60년 여정을 정의하는 키워드로 ‘난타’와 평창 올림픽, 뉴욕 시절과 함께 두 편의 연극 ‘에쿠우스’와 ‘더 드레서’를 꼽았다.

송승환은 1981년 연극 ‘에쿠우스’에서 말 잃고 마리의 눈을 찌른 17세 소년 ‘알런 스트랑’ 역을 맡았다. 그에게 1981~85년은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5년”이었다. KBS ‘젊음의 행진’ MC, KBS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를 통해 주목받으며 눈코 뜰 새 없던 시절이다. 송승환은 “토요일이면 ‘에쿠우스’ 낮 공연을 끝내고 곧바로 KBS로 가 ‘젊음의 행진’ 생방송을 해야 할 만큼 바빴다”고 회상했다. ‘에쿠우스’로 송승환은 1982년 백상 연기상을 받았다.

1985년 그는 화려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뉴욕행

을 결정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적 파산이었다. 하지만 그는 뉴욕에서의 3년을 “행복했던 시기”라고 했다. 그리고 “향후 ‘난타’ 같은 작품을 낳을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됐다”고 돌아봤다. “위낙 바쁘게 살다가 시간적으로는 여유를 누리면서 공연과 영화 등을 마음껏 봤던 때”라는 것이다. 송승환은 “뉴욕에서 여러 작품을 보면서 대사 없는 공연은 상상조차 못 하던 내 안의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했다.

1997년 초연한 ‘난타’는 그에게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세세히 뜯어보면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대사가 없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배우와 스태프에게 설득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2001년 9월 브로드웨이 진출을 위해 미국 순회공연을

시작했는데 9·11 테러로 공연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2003년 9월 브로드웨이의 ‘뉴 빅토리 극장’ 무대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마침 극장 예술감독이 1999년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난타’를 관람한 적이 있었다. 그날 관객의 기립 박수에 대해 송승환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완성됐다”고 했다.

송승환은 2015년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 공모에 참가하지 않았다. “선배 및 동료와 경쟁하는 게 내키지 않았고, 심사위원이 외국인이라는 것도 못마땅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했이라며 송승환에게 총감독직을 제의했고, 그는 수락했다.

당시 준비 과정을 묻자 그는 즉각 이렇게 답했다.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적은 예산, 예측 불가능한 날씨,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등 곳곳에 암초가 널렸다.

송승환은 “여러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한마디 ‘올림픽이잖아’였다”며 “그만큼 올림픽이라는 이벤트의 무게감과 존재감이 컸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2018년 2월 폐회식 날 밤 드론으로 만든 마스코트 수호랑이 평창 하늘을 수놓았고, 그렇게 ‘난타’에 이은 송승환의 또 다른 인생작이 완성됐다.

흐려진 시야, 불편하지만 불가능 없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송승환은 ‘난타’ 전용 극장이 있는 태국 방콕으로 날아갔다. 따뜻한 곳에서 잠시 쉬고 싶어서였다. 그때부터 세상이 자꾸만 흐릿해 보였다. 문자 메시지도, 식당 메뉴판도 제대로 못 봤다. 귀국 뒤 병원에서 황반변성,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말을 들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었다.

하루를 평평 읊었다. 그러고는 이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냈다. 문자 메시지를 음성으로 들었다. TV를 볼 때 자막 읽어주는 서비스를 전자 회사에 건의해 만들어냈다. 불편했지만 불가능은 없었다. “30cm 안쪽만 볼 수 있고 그 나머지는 흐릿한 형태밖에 안 보이지만 못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획도 할 수 있고, 연기도 가능했다.”

자신의 인생을 두고 “거절할 대본”이라고 하면서도 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짓궂은 대본은 열린 결말이었고 송승환은 퇴장하는 대신 다시 무대에 서기를 택한 것이다. 시력이 약해진 이후 드라마(MBC ‘봄밤’, KBS2 ‘삼남매가 용감하게’)에도 출연했다.

데뷔 60주년을 맞은 송승환은 여전히 분주하다. 당장 다음 달 11일 열리는 데뷔 60주년 사진전 준비에 한창이다. 책 『나는 배우다, 송승환』도 출간한다. 7월에는 뮤지컬 ‘정글북’을 내놓는다. 10월엔 지난해에 이어 그가 총감독을 맡는 ‘파주페어 북엔컬처’가 열린다.

하남현 기자

연기부터 감독까지, 화려한 전성기
1965년 8살 라디오 드라마 데뷔
누적 관객 1550만명 ‘난타’ 기획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연출도 대박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장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오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론 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마지막 퍼즐 맞추고 싶어”

유로파리그 결승 앞둔 손흥민

“퍼즐을 만드는 데 모든 피스(조각)를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피스가 부족한 것 같다. 그 피스를 찾아 10년 동안 해왔는데 이번엔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캡틴’ 손흥민(토트넘)은 12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북런던 토트넘 홋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데이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각오를 다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은 오는 21일(서부 시간) 스페인 빌바오에서 같은 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유)와 UEL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

손흥민에게는 유로파리그 결승은 여러 의미로 중요한 경기다. 발 부상으로 한 달 동안 전열에서 이탈해 있던 손흥민은 전날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홈경기에서 공식전 8경기 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내년 계약 만료를 앞둔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찬 UEL 결승에서 토트넘이 올 시즌 부진의 터널을 벗어나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공식 대회 ‘무관’ 타이틀을 벗어던지는 데 앞장설 참이다.

손흥민 자신도 독일과 영국을 아울러 지금껏 뛴 국외 프로리그에서 첫 트로피를 안을 순간을 기다린다.

손흥민은 “모든 경기가 특별하고 같은 값어치 있지만, 이번 경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라며 “이번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꼭 시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 팬 분들, 또 우리 토트넘 팬 분들에게 좋은 선물,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웃음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흥민(토트넘)이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팬들에 좋은 선물 드리고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은 손흥민과 일문일답. -올 시즌을 특별하게 만들겠다고 애기했다.

“제가 토트넘에 남아 있었던 이 유가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싶다는 점이 가장 컸다. 퍼즐을 만들려면 모든 피스(조각)가 다 있어야 한다. 모든 피스는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피스가 부족한 것 같다. 그 피스를 찾아서 10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퍼즐 마지막 한 피스를 맞추는 데 있어 두 번의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배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

승전을 치렀을 때 선수들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저와 경험 있는 선수들이 그런 경험을 다른 선수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느낌이 색다르다. 정말 이기고 싶고 많은 분이 저만큼 또 간절히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잘 준비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했는데 연락은 했다.

“문자를 보냈는데 영상 통화가 오더라.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기뻐했다. 워낙 친한 친구이고 같이 많은 것을 이뤄낸 동료로서 정말 너무나도 가족 일처럼 기뻐했다. 그런 좋은 기운들, 케인 선수가 응원해 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부상 때문에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축구 선수에게 몸 상태가 좋은 상황에서 경기에 나가는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경기에 잘 뛰고 있고 잘 준비하는 게 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을 다시 되돌려 얘기한 다기보다는 좋은 일들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현재 클럽에서 세 번째 결승인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나.

“모든 경기가 저한테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경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엄청 많이 집중하고, 몸 상태도 그에 맞춰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꼭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 팬분들, 또 우리 토트넘 팬분들한테 좋은 선물,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웃음을 드리고 싶다.”

[연합뉴스]



비디오 판독 끝에 2루에서 아웃 판정을 받은 김혜성이 아쉬운 표정을 짓자 다이아몬드백스 2루수 제랄도 페르도모가 위로하듯 웃고 있다. [Rick Scuteri-Impgn Images-로이터]

김혜성, 연속 경기 안타

첫 2루타는 실패

‘혜성 특급’ 김혜성(LA다저스)이 두 경기 연속 안타를 뽑아냈다.

김혜성은 11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문 경기에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그는 MLB 데뷔 후 첫 장타를 생산하는 듯했으나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돼 아쉬움을 남겼다. 시즌 타율은 0.316에서 0.318(22타수 7안타)로 살짝 올랐다.

김혜성은 1-0으로 앞선 2회초 1사 2루에서 우완 투수 잭 갈렌에게 루킹 삼진으로 아웃됐다. 4회초 2사에서 들 어간 두 번째 타석에서도 3루 땅볼로 아웃됐다. 안타는 3-0으로 앞선 6회초 공격 때 나왔다. 무사 1루에서 타석에 선 김혜성은 볼카운트 1볼에서 갈렌의

2구째 가운데 몰린 80마일 너클 커브를 받아 쳐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김혜성은 재빠르게 2루까지 내달려 세이프 판정을 받아 MLB 데뷔 후 첫 2루타를 기록하는 듯했다. 그러나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으로 판정했다. 김혜성은 아쉬움이 큰지 하늘을 보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김혜성은 8회 공격 때 대타 미겔 로하스와 교체돼 경기를 마쳤고, 다저스는 8-1로 대승을 거뒀다. 같은 날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멀티플레이어 배지 환은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홈 경기 3-0으로 앞선 6회말 대주자로 출전해 2루 도루에 성공했다.

그는 전날 애틀랜타전에서 올 시즌 첫 도루에 성공하더니 이날도 도루를 추가하며 대주자로서 능력을 과시했다. 다만 시즌 첫 안타 생산엔 실패했다.

[연합뉴스]

동부 1위 캐벌리어스 탈락 위기

2R 4차전 페이서스에 패배

NBA 동부 콘퍼런스 1위로 정규시즌을 마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플레이오프(PO) 2라운드 탈락 위기에 몰렸다.

클리블랜드는 11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게인브리지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2024-2025 NBA PO 2라운드(7전 4승제) 4차전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109-129로 크게 졌다.

1, 2차전을 차례로 내준 클리블랜드는 3차전 126-104 완승을 거둬 반등하는 듯했으나 4차전 패배로 벼랑 끝에 몰렸다. 정규리그 동부 콘퍼런스 1위(64승 18패)로 오른 PO 1라운드서 마 이애미 히트를 4승 무패로 압도한 클리블랜드는 2라운드에서는 4위 인디애나(50승 32패)에 고전 중이다.

[연합뉴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캔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한아름(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캔들리 롯데에서 각각 5분 거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청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nmkim@prosperlawpllc.com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TRAN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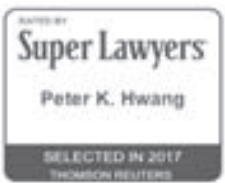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5월
구
인
광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571-212-3082

매매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간병사 코디네이터

구합니다

Hanmi Homehealth
(이전 CSC Home Care)

Springfield Office 에서
간병사 Schedule 관리 하고
Client Follow Up 하실 분
구합니다.

약간의 이중언어,
컴퓨터 관리 필요 합니다.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급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컷시티 카페에서 금/토/일 주방에서
뒷일 하실분 구합니다.
443-386-051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찬모/ 웨이츄레스/ 웨이터
부패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컷시티 픽업 스토어 카운터 구함
폴/파타임, 베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소에서 바지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
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싱글/타운방 렌트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
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뉴그랜드마트 근
처, 욕실 딸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 하나 (출입구 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
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욕실 딸린 이층 큰방, 반지하방 (출입
문 별도)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볼티모어 오임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임
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라결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케어피플 홈헬스 (센터빌 & 애난데일) 에서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한미홈헬스 간호사 코디네이터 구함
간병사 스케줄관리, Client Follow-up
약간의 이중언어, 컴퓨터 가능하신분
▶KDLHJL@gmail.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케어피플 홈헬스 (애난데일 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
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
설팅. 2024년에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세금 보고 무료 서비
스 안내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폴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폴/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
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찬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찬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폴/파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헬퍼 아
주머님, 카운터 캐쉬어 구합니다.
703-401-9879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찬모/ 웨이츄레스/ 웨이터
부패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
하실 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
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
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 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타
임, 캐쉬메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중앙일보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703-266-1983 Chantilly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는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 571-376-7878	센터빌 롯데근처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운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타운홈 렌트 (옥튼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센터빌 콜린 파월 초등학교타운하우스 렌트 \$3,200 방4, 화2.5, 차고2, 전부 마루, 업데이트,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29/28/66/50/286, 근처에 H마트, 롯데, 성당, 4/15 입주 571-239-6054 맥클리 하이싱글 렌트 \$5,900 방5, 화3, 카포치2, 펜스, 전부모던형으로 리모델링, 메트로 근처, 6/1 입주 571-239-6054 챠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산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옥튼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유포 443-631-7866 스프링필드타운홈 2층 작은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애난데일 예츠앳 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 474- 9713 챠틀리 롯데 근처싱글하우스 위층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아난데일 예츠근처 반 지하 방1 / 화실 / 샤워 /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챠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센터빌 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 구합니다. 화/금/토 저녁 6시 ~9시반까지 8세, 9세 아이들 돌봐주실분 201-684-8974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473 -6022.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컷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콘도 렌트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존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방 렌트 한강뒤 싱글홈 새로 고친 반 지하 방3, 욕실2 큰거실 입구 별도 주차 낙낙 즉시 입주 가능 703-395-4380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렌트, 조지메이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터넷 유포 \$800 비출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 교회 뒤탼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비출연자 환영 703-887-5173 페어팩스 왓슨 하이스쿨 근처 싱글홈 지하 전체 렌트, 조용한 동네, 워크아웃, 큰 방1/부엌/욕실/거실/세탁기, 건조기/유포 6월 1일 이후 입주 가능 571-271-3556 (문자요망) 센터빌 CVS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Candem 아파트 5월, 6월, 7월 단기 서비스 합니다. 방 1, 풀베스 1, 셰어 키친, 파킹 티켓 1, 월 \$800 571-623-0255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트 방2/새 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워크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낙낙 703-965-2343 스프링 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넷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237-3411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콘도매매 \$375,000 스프링필드 방2, 화2, 새 카펫, 새 페인트, 탁트인 구조, 넓은 리빙룸, 발코니2 703-813-8949 콘도매매 \$369,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 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챠틀리 End Unit 벽돌타운 하우스 \$779,000 방3, 화장실 3.5,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자이언트 몰 앞 ▶571-239-6054 1. 사우스 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츠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타운홀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Comming soon 리스트
Annandale 싱글홈 \$890,000
Springfield 싱글홈 \$800,000
South Riding 싱글홈 \$1.2m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골프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텍,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 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3. Open House 4/13 (SUN) 2-4pm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66, Giant, Harris Teeter, Gateway Shopping mall
▶571-239-6054

에난데일 콘도 \$210,000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깝음
▶703-813-8949

1. 패어팩스타운하우스 \$800,000
2010년, 방3, 화3.5, 차고2, 2,300sqft
Fairoaks mall, route 50/66/286
2. 센터빌 Fair Crest Town \$695,000
방3, 화3.5, 차고1, 앤드 유닛, 텍, 팬스, 파월츠, 센터빌하이
3. 패어팩스콘도 \$580,000
방2, 화2, 차고2, 엘리베이터, 계단없는 단층 콘도, 1,078 sqft, 콘도비 \$534.77/m, 66/286/FairOaks mall, Fairlakes mall
4. 센터빌 중심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1. 패어팩스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2, 패어팩스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싱글 \$850,000
방4, 화장실2+1, 차고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3. 패어팩스싱글 \$1,300,000
방4, 화장실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4. 패어팩스싱글 \$1,900,000
방4, 화장실3+1, 차고2, 맨투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집
5. 옥튼 새싱글 \$2,300,000
방5, 화장실4+1, 차고2
1.8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6. 맥클린싱글 \$2,200,000
방4, 화장실4, 차고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703-899-8999

1. 센터빌타운하우스 \$600,000
방3, 화장실3.5, 렌트수익 \$2,900
2. 레스톤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2.5, 렌트수익 \$3,000
3. 패어팩스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3.5, 호수뷰, 차고2, 렌트\$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나서스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2001년부터 에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시설 일체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합니다. 관심있는 신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상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찬들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앤지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상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소니 카메라 - 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 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태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 굿 \$3,000
571- 814-8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규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팔립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텍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틱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자업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험처리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및설치 (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벌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파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펫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세스 메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가게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설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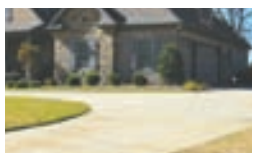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데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계단

워크웨이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재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텍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크패드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독자가 행복 해진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텝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Better than the Best Quality”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소품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통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Justin: Come on Dad, why not?
저스틴: 아 참 아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Steve: Absolutely not! You’re not getting a tattoo!
스티브: 절대 안 돼! 문신은 못한다!
Justin: It’s just a small one.
저스틴: 조그만 거라니까요.
Steve: Over my dead body!
스티브: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Justin: But the other kids in school have tatto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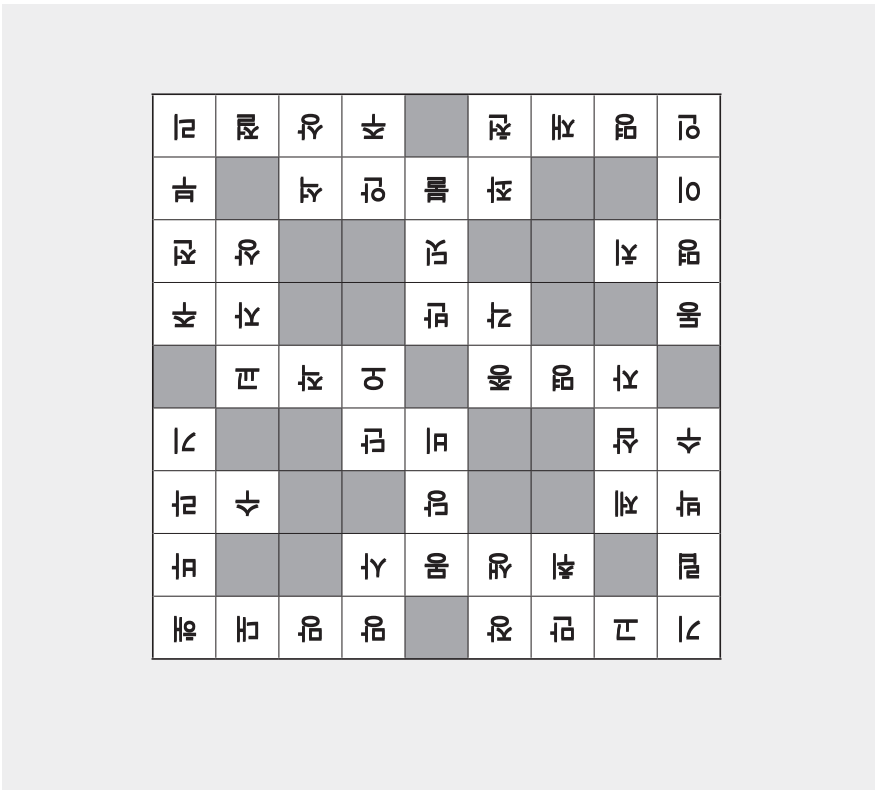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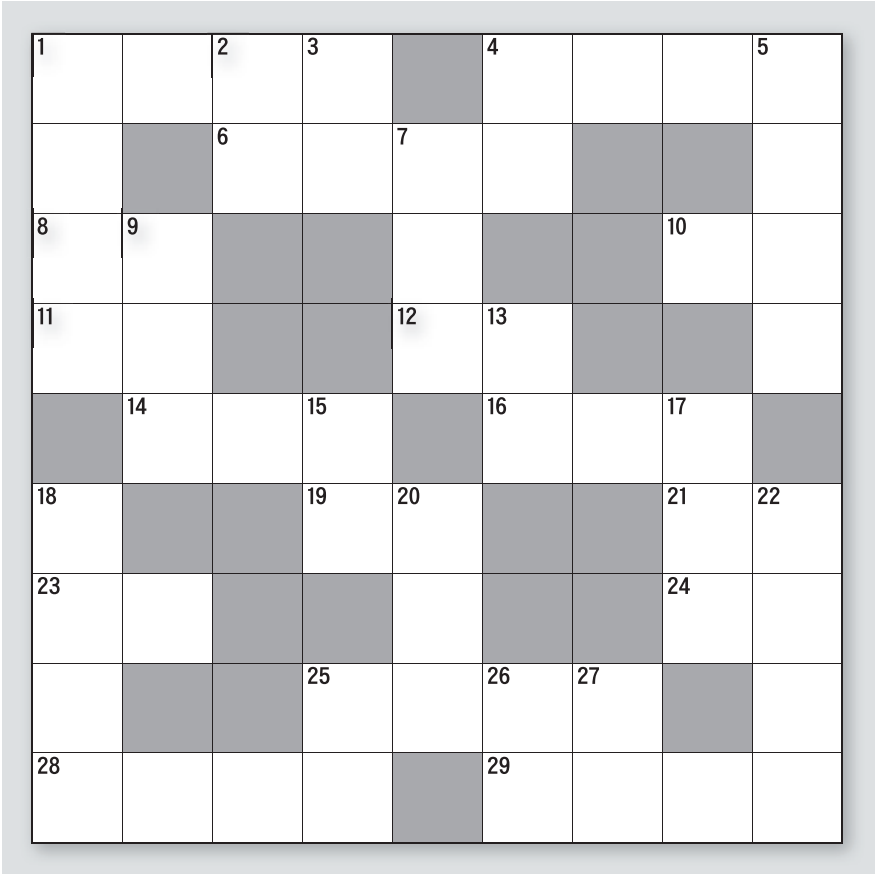
저스틴: 학교의 다른 애들은 문신 다 해요.
Steve: I could care less about the other kids in school.
스티브: 다른 애들은 내 알 바아니다.
Justin: Uncle John your brother has a tattoo.
저스틴: 존 삼촌도 문신 했잖아요.
Steve: Yes, but he wasn’t twelve years old when he got it. He was twenty-one years old and in the army.
스티브: 그래. 하지만 네 삼촌은 열 두 살 때는 안

over my dead body; 절대 안 돼
Justin is talking to his father. (저스틴이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다.)

했어. 스물 한 살 때 군대에서 했어.
Justin: I can’t wait to be twenty-one.
저스틴: 빨리 스물 한 살이 되고 싶네요.
Steve: While you’re living under my roof, you’ll obey my rules.
스티브: 엄마와 아빠랑 사는 동안은 시키는 대로 해.
.....
기억할만한 표현
▶ *I could care less about (something): 신경 안 써.

내 알 바아니다.
“I could care less about how much money my neighbors make.” (이웃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 지 신경 안 써.)
*(one) can’t wait to …: 어서 ~하고 싶다. 설레다.
“I can’t wait to go on my vacation next week.” (다음 주에 휴가를 간다니 설렌다.)
*While you’re under my roof, you’ll obey my rules: 부모하고 살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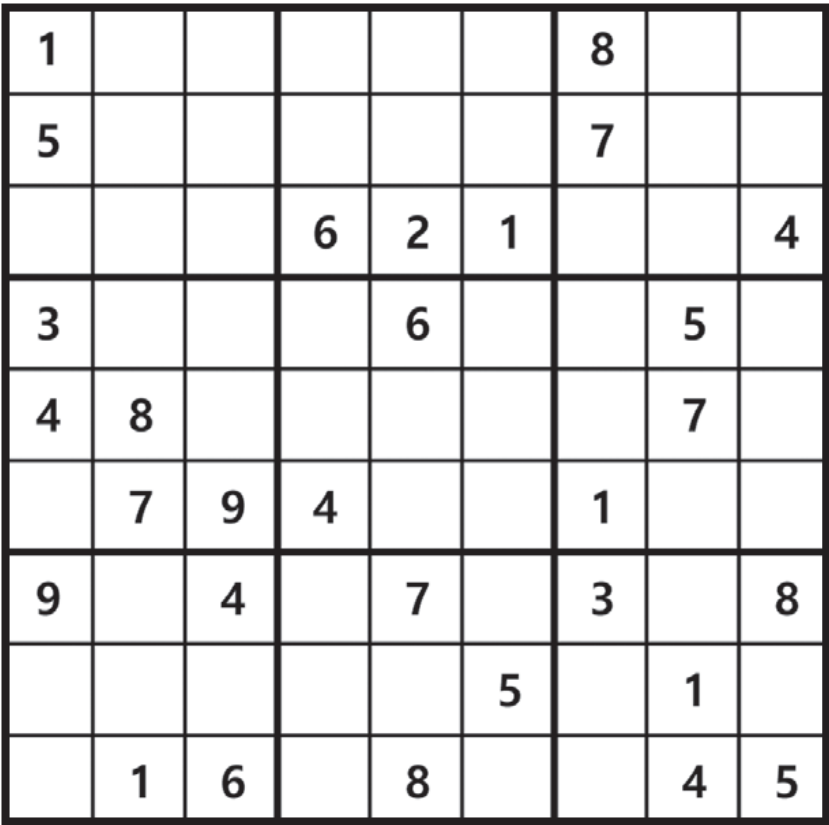
가로열쇠

(1)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 펄펄 뛸 만큼 대단히 성이 남. □□□□ (4)한없이 넓고 큰 바다. □□□□ (6)술에 취하여 자는 동안에 꾸는 꿈 속에 살고 죽음. 한평생을 아무 하는 일 없이 흐리멍덩하게 살아감 (8)살아 있는 모양 그대로 만든 동물 표본 (10)임금에게 올리는 밤 (11)말리지 아니한 인삼 (12)누에고치에서 뽑은 가늘고 고운 실로 짠 광택이 나는 피륙 (14)아침에 잠을 깨워 주는 시계 (16)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에 만든다는 다리 (19)검을 갈을 때 가뜰하도록 발목에서 무릎 아래까지 때는 형갈 띠 (21)짙은 남빛에 붉은빛을 띤 빛. 남치마 은색 저고리에 ~고름 남 끝둥이 고왔다(한무숙) (23)가슴뼈 아래 중앙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24)예전에, 종에 상대하여 그 주인을 이르던 말 (25)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 안절부절못하는 모양 (28)사람 목숨의 길고 짧음은 하늘에 달려 있음. □명□□ (29)용암이 흐르다가 바닷물 등과 만나 급격하게 굳어져 생긴 5각형 혹은 6각형 형태를 가지는 길쭉한 기동 모양

세로열쇠

(1)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치는 박수 (2)술에 잔뜩 취함 (3)오래 삶. ~ 불사 (4)그물과 같이 성기게 짠 김. 꼰벌 따위를 다룰 때에 얼굴에 뒤집어쓰도록 그물처럼 만든 물건 (5)줄기는 높이 2미터 정도로 곧게 자라고, 8~9월에 노란색의 둥글고 큰 꽃이 줄기 꼭대기에 핀다 (7)끝부분이 아주 많이 닳아서 자루만 남은 비 (9)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 (13)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한다 (15)큰 종을 달아 두는 누각 (17)음식을 차려놓는 사각형의 큰 상.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한식 ~이 줄달아 들어왔다 (18)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 동□□□ (20)개똥벌레의 꿈무늬에서 나오는 빛. 숲속에서 떠다니는 ~은 마치 별을 보듯 아름답다 (22)까니 외에 딱이나 과일, 과자 따위의 군음식을 먹음. ~로 튀밥을 먹었더니 밥맛이 없다 (25)낮은 관직이나 지위로 떨어지거나 외직으로 전근됨. 책임을 물어 시말서를 쓰게 하고 ~을 시켰다 (26)술을 마실 때에 곁들여 먹는 음식 (27)돌을 조각하여 만든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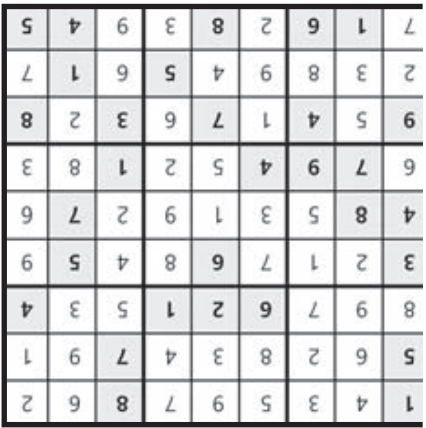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양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양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CVS: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MP MilestonePoint **비즈니스 융자 / SBA / 상용 부동산 융자 / 주택 융자** **LOAN FACTORY**
NMLS #320841 Terry Kwon, Loan Originator
NMLS #2620208

- SBA 비즈니스 융자 \$5,000,000까지
- 35개 이상의 SBA 전문 렌더
- 추가 SBA론, 별도 브로커 비용 없음
- 새로 비즈니스 인수 - 10% 다운
- SBA 부동산 융자 - 10% 다운, 단 51% 공간 직접 사용 요구, 25년 상환
- 크레딧 손상 안되는 SBA 무료 승인

- 단기 간단하고 빠른 머천론
- Business Line of Credit
- 기계 장비 융자
- 상용 부동산 융자
- 투자용 부동산 융자
- 단기 부동산 융자: 건축융자, 브릿지론, Fix & Flip

"오랜 경험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및 부동산 융자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전화: (631) 624-4480
웹사이트: milestonepointinc.com

- 론팩토리는 미국내에서 매년 가장 많은 주택 모기지 클로징하는 브로커리지
- 240 이상의 모기지 프로그램에서 좋은 이자율과 조건을 찾아드리기 때문
- 론팩토리는 미국 48개주 라이선스 보유
- 즉석 모기지 이자율 견적- 무료 모기지 쇼핑

- 주택 구입/재융자
- 무료 상담 및 사전 승인
- 2차 융자: HELOC, HELoan
- FHA 낮은 크레딧과 적은 다운
- 세금보고서 대신 은행 명세서
- 외국인 주택 구매
-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기타 지역 **하숙·렌트**

구인 **한국/서울아파트렌트**
동대문근교 한달렌트비 \$1,800
장/단기 및 시설 완비 (808)989-5424
한국 010-2807-0619

달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 환영. 숙소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레

개인 / 비즈니스 / 융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출생)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양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양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외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땀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ADT 시큐리티 알람서비스

"강도, 도둑도 방지, 예방이 최고입니다."
소중한 집, 자산, 가족의 안전 보호는 ADT가 최고입니다.

남가주 최대 공인딜러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무료 초인종 카메라 전화기로 연결 가능

Since 1874 **ADT**®
877.373.0265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